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 영 학 박 사 학 위 논 문

베트남 빈증성 지역 진출 한국자회사의
누적 생존율 및 영향요인 분석



국제통상물류학과

TRAN THI THANH HANG

경 영 학 박 사 학 위 논 문

베트남 빈증성 지역 진출 한국자회사의
누적생존율 및 영향요인 분석

지도교수 최 순 권

이 논문을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TRAN THI THANH HANG

TRAN THI THANH HANG의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위원장	경영학박사	김 춘 수	(인)
위 원	경영학박사	김 석 수	(인)
위 원	경영학박사	김 정 포	(인)
위 원	경영학박사	구 지 은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최 순 권	(인)

목 차

I.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II. 생존분석 이론 고찰	5
제 1절 분석 모형	5
1. 생존분석 개념	5
2. 생존시간의 함수	6
제 2절 생존함수 추정방법	9
1. 생명표 방법	9
2. Kaplan-Meier의 생존함수	10
III. 기업생존에 관한 선행연구	12
제 1절 생존율에 관한 기존연구	12
제 2절 기업생존 요인에 관한 기존연구.....	14
1. 기업의 내적요인	15
2. 기업의 외적요인	27
제 3절 빈증성 지역의 외국인투자 현황	32
1. 빈증성의 경제 현황	32
2. 2017년 외국인 투자 동향.....	33

IV.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37
제 1절 연구모형	37
제 2절 연구가설의 설정	39
V. 연구방법	46
제 1절 표본의 선정과 자료수집 방법	46
제 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48
제 3절 연구방법론.....	50
VI. 결과 분석	52
제 1절 표본의 현황	52
제 2절 생존함수 추정결과	53
제 3절 각 요인에 따라 생존율 추정 및 가설 검증	56
1. 초기 투자규모.....	57
2. 현재규모	66
3. CEO의 특성	69
4. 투자유형	79
5. 입지유형	84
VII. 결론	90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90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93
참고문헌	94

표 목 차

<표2-1> 회귀분석과 생존분석 방법의 차이점제	6
<표2-2> 생존함수 추정방법	9
<표2-3> 생존분석의 조건	10
<표2-4> 생존분석의 조건	11
<표3-1> 베트남 빈증성 국가별 투자 누적 액.....	33
<표4-1> 가설 및 주요 요인.....	45
<표5-1> 기업규모 구분 기준.....	48
<표5-2> 변수정의 및 측정.....	50
<표6-1> 표본의 빈도분석 결과.....	52
<표6-2> 기술통계량.....	53
<표6-3> 전체 베트남 빈증성 지역에 진출한 한국 자회사 생명표	54
<표6-4> 소규모로 진출한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57
<표6-5> 중규모로 진출한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58
<표6-6> 대규모로 진출한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60
<표6-7> 생존 시간에 대한 평균 및 중위수.....	61
<표6-8> 대응별 비교.....	63
<표6-9> 소규모로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64
<표6-10> 중규모로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65
<표6-11> 대규모로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66
<표6-12> 생존 기간에 대한 평균 및 중위수.....	67
<표6-14> 베트남인 CEO를 가진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70
<표6-15> 한국인 CEO를 가진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71
<표6-16> 생존 시간에 대한 평균.....	72
<표6-17> 대응별 비교.....	73
<표6-18> 여성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74
<표6-19> 남성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76

<표6-20> 생존 시간에 대한 평균.....	77
<표6-21> 대응별 비교.....	78
<표6-22> 합작 투자로 진입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79
<표6-23> 단독 투자로 진입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80
<표6-24> 생존 시간에 대한 평균.....	82
<표6-25> 대응별 비교.....	83
<표6-26> 일반지역에 위치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84
<표6-27> 공단에 위치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85
<표6-28> 생존 시간에 대한 평균.....	87
<표6-29> 대응별 비교.....	88
<표6-30> 가설 검정 결과.....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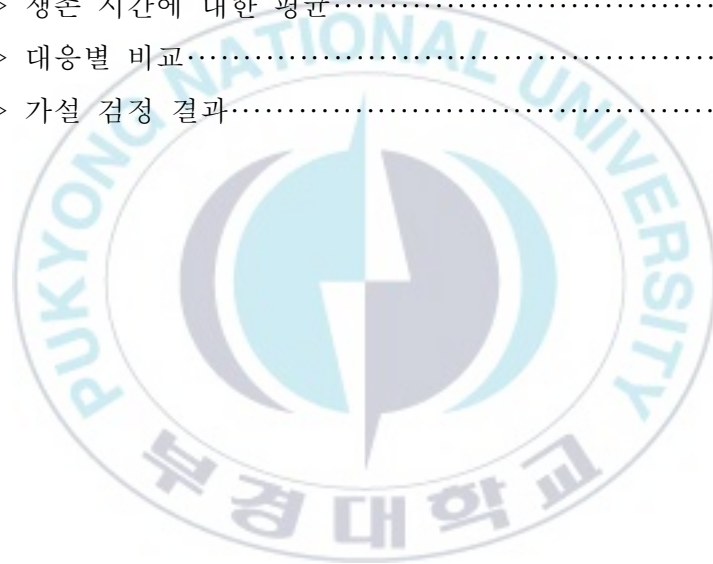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4-1> 연구의 모형	38
<그림5-1> 한국 자회사의 생존기간.....	47
<그림6-1> 한국 자회사 전체 435개사의 생존함수.....	55
<그림6-2> 한국 자회사 전체 435개사의 위험함수.....	55
<그림6-3> 초기투자규모별 한국 자회사의 생존함수.....	63
<그림6-4> 현재 규모별 한국 자회사의 생존함수.....	68
<그림6-5> CEO의 국적에 따라 한국 자회사의 생존 함수.....	73
<그림6-6> CEO의 성별에 따라 한국 자회사의 생존 함수.....	78
<그림6-7> 투자형태별 한국 자회사의 생존함수.....	82
<그림6-8> 입지형태별 한국 자회사의 생존함수.....	87

베트남 빈증성 지역 진출 한국자회사의
누적 생존율 및 영향요인 분석

TRAN THI THANH HANG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요약

베트남은 최근에 들어 외국인투자 유치율 계속 강화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TP)과 각종 무역협정에 가입하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5년에 한-베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투자와 교역 규모가 모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과 베트남 투자 증대와 함께 해외 철수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회사의 생존 요인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 빈증성 지역에 진출한 435개의 한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을 추정하였고 자회사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누적 생존율을 추정하기 위해, 의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는 생존분석 방법 중 하나인 카플란-마이어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증성 진출 한국 자회사의 5년차 누적 생존율이 86%이고 10년 누적 생존율이 45%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국내연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생존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기업특성변수 4개(초기 투자규모, 현재규모, 최고 경영자의 특성, 투자유형)와 입지특성(산업단지 입지 여부) 등 총 6개를 설명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4개 변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기투자규모가 큰 자회사, 현재규모가 큰 자회사일수록 자회사의 생존율이 높아진다. 또한 단독투자로 진출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높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한국자회사의 생존율이 일반지역에 입지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A Study on accumulative survival rate and its affecting factors of Korean Subsidiaries in Binh Duong Province

TRAN THI THANH HA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ogistic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recent years, Vietnam has continu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has joined th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TP) and various trade agreements. In particular, since the Korea-Vietnam FTA came into effect in 2015, both the investment and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Vietnam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Considering that overseas exits are on the rise in investment in Korea and Vietnam, the survival factors of subsidiaries need to be analy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cumulative survival rate of Korean subsidiaries and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urvival rate of subsidiaries through data analysis of 435 Korean subsidiaries that entered in Binh Duong Province between 2005 and 2015. The Kaplan-Meier method was chosen to perform analyses on survival rate and its affecting factors.

As a result, finding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business survival rate by the 5 year operating subsidiaries reached 86% and the 10-year cumulative survival rate was 45 %. The result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previous studies in Korea and Vietnam.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survival factors of firms used total six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characteristics of firm(initial investment size, current size, CEO characteristics, investment typ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industrial zone vs general area). As a result, initial investment size and current size, investment typ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ubsidiaries was positively related with survival rate. But CEO's gender and nationality was not related with the survival rate of Korean Subsidiaries in Binh Duong Province.

Keywords: Firm survival, survival analyse, Kaplan-Meier, survival rate
FDI firm survival, life-table

I.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무역개발 회의(UNCTAD)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 약 65,000개와 해당 기업의 해외 자회사 85만개가 활동 중이며 일자리 5,400만 개를 창출 하였으며 전 세계 GDP의 약 10%를 차지하였다. 또한, 다국적 기업과 해외 자회사들의 연간 총생산액은 세계 총생산액의 25%를 넘는다. 세계 무역의 2/3를 떠맡고 있으며, 이 무역의 절반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과 해외 자회사의 장기 생존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삼성 연구소의 201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평균 수명은 13년, 한국에서 자회사 설립 후 5년 뒤의 생존율은 30.2%에 그쳤다.

다국적기업과 해외 자회사의 장기 생존에 대한 어려움이 문제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외 자회사의 생존에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한병섭, 2015). 기업 생존에 관한 실증 분석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다. 생존과 철수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시계열적인 기업 내부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 또한, 철수 자체를 경영 활동 실패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기업이 철수에 관해서는 기업 기밀사항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 연도는 파악할 수 있어도 폐업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으로 폐업이 발생했는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최근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중국 중심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부터 해외투자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의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자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는 둔화하여지고 주변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한국 산업연구원, 2015). 반면에 베트남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계속 강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TP)과 각종 무역협정 가입, 특히 2015년에 한-베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투자와 교역 규모가 모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 증대와 함께 해외철수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회사의 생존 요인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을 추정하고 어떤 요인이 자회사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베트남 빈증성 지역에 진출한 한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을 통해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을 추정하였다. 또한 자회사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누적 생존율을 추정하기 위해, 의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는 생존분석 방법 중 하나인 카플란-마이어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카플란-마이어 방법과 다른 단순한 비율 통계 방법의 차이는 불확실한 자료도 함께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연구기간 중간에 발생하는 신규 진입이나 철수 등의 다양한 사례들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누적 생존율을 계산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빈증성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에서 규명되는 기업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결과를 알아보는 가설 1에서 가설 5까지를 한국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베트남 빈증성 투자계획부에서 제공하는 2005년~2015년 사이에 설립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부문 483개의 한국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카플란-마이어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본 연구의 배경,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구성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생존 분석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기업 생존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빈증성 지역의 경제 현황 및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한 후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모형, 사용할 자료에 대한 소개 및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측정 방식을 소개하였다.

제 6장에서는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 분석 결과와 함께 기업 특성에 따

라 생존율의 차이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7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해 서술하였다.



II. 생존분석에 관한 이론고찰

제1절 생존분석 모형

1. 생존분석 개념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또는 사건 사 분석(event-history analysis) 이라고 특정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나아가서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을 때 주로 사용한다. 다시 말하자면 생존분석이란 한 상태(state)에 머물러 있는 시간의 길이를 분석하고 이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색출하고 그 효과의 강도를 추정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생존분석에서 알아야 할 개념으로 생존시간, 사망 또는 실패, 중도절단이 있다. 우선, 생존시간(survival time)이라고 하면 대상 사건이 무엇이건간에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생존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까지의 시간의 길이가 측정변수이지만, 꼭 물리적인 시간일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측정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사망 또는 실패는 대상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도절단은 아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이 종료된 케이스이다.

결국, 생존 분석은 생존 자료에 대해 생존함수를 추정하여 모집단의 생존시간 분포 파악, 추정된 생존함수가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생존시간)과 생존시간에 영향을 미치

는 독립변수의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 방법이다(임채윤.이윤준.이광호.김종선.배영임.김성진, 2008).

생존자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둘째,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중도절단이 존재한다.

<표 2-1> 회귀분석과 생존분석 방법의 차이점

분석방법	독립변수	종속변수	중도절단 허용	결과의 산출
선행회귀분석	범주형 또는 연속형	정규분포	안됨	선형적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범주형 또는 연속형	이항분포	안됨	오즈비 (odds ratio)
생존분석	시간, 범주형 또는 연속형	이항분포	허용	위험률

자료: 송경일. 최중수(2008)

2. 생존기간의 함수

생존분석에서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와 위험함수(Hazard function)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험(risk), 조건부 위험(Conditional risk), 위험률(hazard rate)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위험이란 각각의 관찰 기간에서 전체 대상자 중 사건이 발생한 비율로 정의되고, 조건부 위험이란 전기 관찰 구간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 사건이 발생한 비율로 정의되며 위험률이란 조건부 위험을 관찰 구간의 크기로 나누어 준 값을 의미한다.

가.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특정의 시간을 넘겨 생존하는 확률, 즉 특정의 시간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확률을 생존함수라고 한다. 생존시간이라는 변수를 T 로, 실제로 관찰된 생존시간의 값을 t 로 표기하면, 생존함수 $S(t)$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t) = \Pr(T \geq t)$$

전체 연구 대상자의 수를 N 라고 하며 이 중에 t 시간 이상 생존한 수가 n 이었다고 하면 $S(t)$ 의 추정치는 n/N 이다. 즉, t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개체들이 전 개체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S(t)$ 인 것이다.

생존함수는 생존확률이라고도 부른다. 이에 반하여 시간 t 까지에 사망하는 확률 $F(t)$ 를 누적 분포함수 또는 단순히 누적 확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F(t)$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t) = \Pr(T \leq t) = 1 - S(t)$$

관찰을 시작하는 시점, 즉 $t=0$ 일 때에는 아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생존함수는 $S(t)=1$ 이고 $t=0$ 일 때에는 모든 개체에 사건이 발생했으니 생존함수는 $S(\infty)=0$ 이다.

나. 밀도함수(density function)

밀도함수는 정해진 시점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강도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밀도함수 $f(t)$ 는 매우 작은 시간변화 동안 발생하는 사망확률(으)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t) = \frac{\lim_{\Delta t \rightarrow 0} (t \text{시점에서 } t + \Delta t \text{시점으로 변화할 동안 사망한 개체 수})}{\Delta t}$$

$$F(t) = \frac{t \text{시점 이후 구간 동안 사망한 실험 개체 수}}{\text{총 실험 개체 수} \times \text{시간 간격}}$$

다. 해저드 위험함수(hazard function)

해저드 함수 $h(t)$ 는 실험개체가 특정한 시간 간격에서 사건이 발생할 기대치를 의미한다. 즉, t 시점까지 생존한 개체가 t 시점 직후 사망할 확률을 의미한다. 해저드를 수식으로 제시하면

$$h(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text{한 개체가 시간 } (t, t + \Delta t) \text{ 내에 사망하는 확률} / t \text{까지 생존 개체 수}}{\Delta t}$$

$$h(t) = \frac{t \text{시점의 사망 개체 수}}{t \text{시점까지 생존 개체 수}}$$

$$h(t) = \frac{f(t)}{S(t)}$$

제 2절 생존함수 추정방법

생존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모수적 방법, 비모수적방법과 준모수적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모수적 방법은 생존 자료에서 생존시간이 특정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생존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비모수적 방법은 생존함수의 분포에 대하여 아무런 가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존 자료에 대하여 관찰한 대로 생존확률을 계산한 것이다. 준모수적 방법으로는 생존시간에 대한 어떤 분포형태도 가정하지 않아 비모수적인 분석이지만 모형에 근거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 다른 점이 모수적방법과 유사한 방법이다.

<표 2-2>생존함수 추정 방법

모수적 방법	비모수적 방법	준모수적 방법
지수분포 와이블 분포 로그정규 분포 선형 지수 감마 분포	생명표법 카플란-마이어	콕스 비례위험모형

자료: 송경일, 최종수(2008)

1. 생명표 방법

생존분석 중 생명표(life table)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시점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생명표를 가지고 생존 가능성을 분석한다. 생명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관찰 시작 시점 이후 관찰 기간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각 구간 동안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을 계산한다. 각 구간 동안 측정된 확률은 다른 구간 동안 발생하는 사건의 전체 확률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생명표법을 사용한 생존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표2-3>에 보듯이, 최소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 2-3> 생존분석의 조건

- ☐ 연구할 사건(결혼과 이혼, 입사와 퇴사, 질병의 회복과 사망)을 선정한다.
- ☐ 사건의 발생 시간
 - 측정: 사건을 관찰하는 시간 간격을 특정 시간 단위로 나눈 후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입력한다.
 - 수: 한 개
- ☐ 종속변수(사건의 발생 여부)
 - 측정: 각 시간 간격에서 특정 사건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데, 종료된 사례 “0”, 중도절단 사례 “1”로 입력한다.
- ☐ 독립변수
 - 측정: 명명척도
 - 수: 한 개

자료: 송경일, 최종수(2008)

2. 카플란-마이어의 생존함수

Kaplan-Meier는 관찰 구간을 정하여 그 구간 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록하여 생명분석표를 만든다. 특히 이 방법은 중도절단 사례에 대한 취급이 간단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을 쓰고 생존분석을 하기 위하여 <표 2-4> 보듯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 2-4> 생존분석의 조건

- ☐ 연구할 사건(결혼과 이혼, 입사와 퇴사, 질병의 회복과 사망)을 선정한다.
- ☐ 사건의 발생 시간
 - 측정: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입력한다.
 - 수: 한 개
- ☐ 종속변수(사건의 발생 여부)
 - 측정: 각 시간 간격에서 특정 사건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데, 종료된 사례 “0”, 중도절단 사례 “1”로 입력한다.
- ☐ 독립변수
 - 측정: 명명척도
 - 수: 한 개

자료: 송경일, 최종수(2008)



III. 기업생존에 관한 선행연구

제1절 기업의 생존율에 관한 기존 연구

기업의 제1목표는 생존과 존속이다. 기업 활동의 성과는 결국 기업의 생존기간 연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이상호, 1998). 기업의 생존기간은 기업관련 특성, 기업을 둘러싼 산업 환경, 거시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다. 즉 기업의 생존기간은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느냐에 따르며 어떤 시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기업이 얼마 동안 생존하는가는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아도 국가별로, 산업별로, 시기별로 기업의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에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생존분석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내에서 생존분석을 처음 시도한 것은 이상호(1998)이며, 카플란-마이어 방법으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252개의 제조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종료 기간 4년까지 전자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50%이다. 같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이병기,신광철(2005)은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신생기업 1,780개사의 생존 추이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창업 후 5년까지 전체 기업의 누적 생존율은 약 86.8%, 10년까지는 5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나상균,이준수(2007)의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나상균,이준수(2007)는 1991년~2005년 제조업의 생존기간 추이를 추정하였다. 따라서 전체 기업의 1년 후 생존율99.3%, 5년 후 생존율 82.1%, 10년 후 생존율 57.5%, 15년 후 생존율 40.7%로 분석되었다. 홍성로(2006)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44,500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카플란-마이어 분석을 이용하여 생존율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 후 3~5년이 경과한 기업의 위험이 가장 크고, 50% 이상 기업이 창업 후 15년 이내에 부실화되며,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창선·홍재범 (2008)은 1998년에서 2003년인 11,030개 신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형태(개인, 법인), 참여산업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사업유형 (기술혁신, 일반)별로 생존율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 창업이 개인 창업보다 생존율이 높고, 서비스업이 유통업이나 제조업보다는 생존율이 높으며, 기술혁신형 기업이 일반 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에 김현규(2015)는 한국 정보 통신 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존율 추이를 카플란-마이어 방법으로 분석하고 생존율 추이가 투자 산업, 투자형태, 투자지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독 투자가 합작 투자보다 생존율이 높고 투자지분에서 50%이상이 50%미만에 비해 생존율이 높았다.

국외에서 카플란-마이어 방법으로 생존율 추정에 관한 기존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Dunne (1989)은 1963~1982년 동안 미국 제조기업의 생존율 분석에서 창업 기업의 61.5%가 창업 후 5년 이내에 퇴출되고, 79.6%는 창업 후 10년 이내에 시장에서 퇴출 되었다. Mata · Portugal(1994)은 포르투갈 제조업의 규모를 고려한 생존율 분석에서 신생 기업의 20%이상이 설립한 해에 퇴출되며, 신생 기업의 약 50% 이상은 4년이 되기 전에 퇴출 되어 초기 창업 기업의 오직 30%만이 7년 동안 생존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Geroski(1995)는 영국 신생기업의 평균수명은 약 13년이며, 창업 기업의 오직 40.2%만이 7년 동안 생존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신생 기업의 생존율을 추정 한 Brüuderl · Mahmood(1996)는 섬유, 도매, 운송, 보험, 전자 산업 등 5개 산업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전자 산업의 생존율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산업에서 8년 이후까

지 생존한 기업은 50%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8년 후 30~50%의 기업만이 계속 생존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업의 생존이 창업규모 등 기업특성은 물론 국가마다 산업마다 매우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Dinh Thi Thanh Binh(2014) 베트남 진출 외국기업 183개사의 대상으로 카플란 마이어 방법을 활용하여 평균 생존확률을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2001년 연구 시작 시점에는 외국기업의 생존율이 90%이지만 13년 후에는 거의 철수할 정도로 생존율은 34%에 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외 선행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신생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등의 대상으로 생존율을 분석하였으나 해외 자회사의 생존율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김현규(2015)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외국기업 183개사의 생존 기간 추이를 계산하였다. Dinh Thi Thanh Binh(2015)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83개사의 해외 자회사의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다만, 2개의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양이나 추적 기간이 짧아 의미 있는 사건의 수가 적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 2절 기업생존 요인에 관한 기존연구

신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해외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생존 요인에 관한 초기 선행 연구는 기업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의 내적 요인에는 기업의 규모, 기업의 연령, 산업유형, 재무적 상황, 기술혁신 등 기업 자체가 지니고 있는 속성과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자의 성별, 학력,

경험 등의 속성이 포함된다(김태훈, 2009; 송치승, 노용환, 2010; Helfat & Lieberman, 2002; Cefis & Marsili, 2005; Kim & Lee, 2016). 이에 더하여, 기업의 창업 지역과 입지 선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속한 산업 관련 특성과 지역적 환경, 그리고 거시적 경제여건 등 외적 요인의 영향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김경숙, 2014; Geroski et al., 2010; Christie & Sjoquist, 2012).

1. 기업의 내적요인

가. 기업 규모

기존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이병기, 2003). 기업규모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소규모 기업은 대규모기업에 비하여 생존의 불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그리고 창업규모(start-up size)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업규모(current firm size)도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1) 소규모기업의 생존 불리성

일반적으로 소규모기업은 대규모기업보다 오랫동안 생존하기 어렵다. 조직생태학 생태조직이론에서 규모 의존성을 소규모기업의 생존 불리성으로 정의한다. 소기업이 대규모기업에 비해 오래 생존하기 어려운 원인은 세 가지가 있다(Aldrich & Auster, 1986). 첫째, 대규모기업에 유리한 법규제도는 소기업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소규모기업은 정부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셋째, 소규모기업은 안정적인 장기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

자원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 또한 소기업은 대규모기업에 비하여 환경적응 방면에서 불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실적이 불량한 상황에서, 저항할 재정자원이 부족해서 더욱 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이 외에도, 기타 학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소규모기업의 생존불리성이 존재한 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Stinchcome(1965)는 초기에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소규모기업은 외부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획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과 공급업자와의 관계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Hanna & Freeman(1984)은 소기업은 국제 생산경영 경험이 부족해서 최적의 경영실적에 도달하기 힘들며 상품의 품질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도 경영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Geroski(199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초기투자규모의 경제성은 기업생존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런 대규모의 초기투자는 기업의 원가상의 열세를 낮춰주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하면, 소규모기업은 반면에 열세에 처해 있다.

(2) 중소기업보다 생존가능성이 높은 대기업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대기업은 더욱 많은 경영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자원에 대한 우세도 있기에 중소기업에 비하여 경영 성공률이 높고, 생존 가능성도 높다(이상호, 1998).

신생기업인 경우, 초기규모를 보면, 규모가 작은 기업과 비교 했을때, 규모가 큰 기업은 일반적으로 더욱 높은 신뢰성과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임을 얻는데 유리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빨리 시장에서 정통성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다(나상균, 이준수, 2007). 또한 대규모의 초기투자는 기업 경영규모의 최적화를 실현하는 것에 유리하므로 기업 생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이근우, 강만수, 박상규, 2007).

벤처 기업인 경우, 소규모로 창업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지 못 하며 규모의 비경제 영역에서 영업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기업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비경제로부터 발생하는 불리함을 적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벤처 기업의 규모가 커질 경우 외부자금의 조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 생존에 도움이 된다.

(3) 현재규모가 초기규모보다 기업의 생존에 유의미한 영향

기존기업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창업하는 신생기업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신생기업의 창업초기 불확실성은 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창업기업은 비교적으로 작은 규모를 선택한다. 이 측면에서는 소규모로 진입한 기업은 기존기업으로부터 공격적인 행동을 덜 받게 되고 높은 생존율을 나타낼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창업규모로 기업생존을 연관 짓는 기업의 성장을 평가 할 수 없다.

Mata et al(1995)은 창업규모와 현재의 규모를 구분하여 현재의 기업규모가 창업규모에 비해 기업의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모두 창업규모나 현재의 기업규모는 기업의 생존여부를 전망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나. 최고 경영자

(1) 자원의존 이론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자원을 습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자원이 부족한 조직은 적합한 핵심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자원을 확보한 다른 개체나 조직과 의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Pfeffer & Salancik, 1978; Scott,

1981; Thompson, 1967). 자원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에 의하여 논의를 전개한다(Pfeffer, 1982; 조영빈, 1991).

첫 번째 가정은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 자원과 정당성을 필요로 하므로 제도적 환경 내에서 정부나 다른 조직의 규범과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두 번째 가정은 자원의존이론에서의 조직이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을 스스로 관리하고 자발적인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서, 환경의 압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순응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최세경, 현선훈, 2011). 동시에 환경에 의한 제약을 받는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에 필요한 자원획득을 위하여 외부환경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너무) 자율성을 양도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자원의존이론은 환경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최고경영자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Pfeffer & Salancik, 1978; McGann & Weaver, 2000). 최고 경영자의 역할은 첫째, 리더의 개인적 잠재력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하여 경영자가 조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상징으로서 역할이다. 둘째, 반응적 역할로서 리더가 조직이 직면하는 환경의 요구와 제약에 대응하는 처리자이다. 셋째, 재량적 역할로서 조직을 환경에 적응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제약과 의존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을 수정하는 역할이다(김인수, 1991).

Aspelund(2007)은 자원기반관점에 근거하여 설립 단계에서 창업자에 의해 통제되는 자원은 기업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설명변수임을 가정하였다. 검증결과, 창업자의 경험은 신생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민,김승주(2013)는 자원의존 이론의 바탕으로 최고 경영자의 특성은 기업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결과는 창업자의 멘토가 기업생존과 영향관계가 있는데 최고경영자가 여성인 경우만 통계적 유일하

게 나타났다.

(2) 조직생태학 이론 및 최고경영층 이론

조직생태학자들은 동물행동학자의 각인효과(imprinting effect)이론에 기반을 하여 기업 초기 자원의 설정은 기업내부의 구조적 관성이 되어 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Hannan, 1989). 조직생태학 이론에서의 초기 조직의 전략은 창업자의 철학 및 신념에 의해 형성되며, 창업자의 특성이 반영된 기업 비전은 앞으로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Boeker, 1989; Schein, 1992).

기업 초기의 최고경영자의 특성은 기업내부에 각인되어 기업의 정책과 절차로 나타나며, 지속성을 가지고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Stinchcombe, 1965; Boeker, 1989). 이러한 기업 초기 최고경영자의 각인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최고 경영층 이론을 살펴볼 수 있다(차명수·임성준, 2017)

Hambrich & Mason(1984) 제시한 최고경영층 이론은 조직 내의 지배집단인 최고경영층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조직의 전략과 성패는 조직 내의 권력을 지닌 행위자들의 가치와 인지적 구조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최고경영층의 가치와 인지적 구조는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최고경영층 이론에서의 특성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최고 경영층의 전략적 선택을 중요시한다. 둘째, 조직에 반영되는 최고 경영자의 특성으로서 관찰 가능한 경영자의 특성을 강조한다. 관찰 가능한 경영자의 특성으로서는 연령, 재임기간, 학력, 성별, 국적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포함된다.

최고 경영자의 특성 및 초기 내부자원의 각인이 기업의 성과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다(Bamford, Vernon, Nicholas, & Qureshi, 1999; Boeker, 1989; Hambrick & Mason, 1984; Hambrick, Cho, & Chen, 1996; Shepherd, Ettenson, & Crouch, 2000).

다. 재무적 특성

기업이라는 조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실제로 창출하는 가치를 어느 한 가지로 특정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익성과에서 비롯되고 이익성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은 모든 형태의 기업조직들에게 공통된 속성이다(김학범, 2010). 즉 기업이 생존하려면 가장 중요하는 것은 이익을 내고 현금을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국 기업 생존이 이익 창출에 관한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영상태에 관한 각종 재무 지표가 기업의 생존 분석에 설명변수로 포함되어야 한다(이채우, 1994).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과 같은 재무지표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면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 자체는 기본적으로 친절하지 않다. 재무제표에 포함된 유용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재무비율이다.

재무비율은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확인하려는 지표이다. 우량대출과 불량대출의 판정, 포트폴리오 투자 결정, 경영 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써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생존이나 부실기업의 예측 등에 관한 변수로써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전략을 세울 때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재무비율 분석은 재무제표 계정 간의 관계를 안정성, 성장

성, 생산성, 수익성, 활동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재무비율을 사용하여 기업의 생존 요인을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아래와 같이 정리 된다.

(1) 수익성

수익성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비율로서 영업성과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를 보여준다(임채윤, 2006). 이를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매출액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Kim, Li & Zhang, 2011).

수익성은 기업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Bonfim, 2009). 기업 활동을 통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존속할 수 없으며, 기업의 존재가치도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수익성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을 통하여 측정된다.

먼저 총자산 순이익률은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이 얼마나 운용되고 수익창출에 기여를 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익성지표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산규모가 다른 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박진경·오광호·김민수(2012)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생산요인을 분석한 결과, 총자산 순이익률의 증가가 기업의 퇴출 위험을 감소시키며, 기업 생존의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기업이 투자한 자본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자기자본에 비해 그만큼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는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는 뜻이다. 김경숙·장영민·동영호(2014)의 산업별 기업 생존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자

기자본 순이익률은 기업의 생존기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영업이익 마진을 나타내며, 매출총이익, 판매비, 일반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경영활동에서의 이익창출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2) 안정성

안정성비율은 조달된 자본이 기업자산에 얼마나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가와 기업이 단기적인 재무지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경기변동이나 시장여건의 변화 등 기업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당좌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으로 기업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당좌비율 및 유동비율은 단기적으로 재무상환부담이 있는 유동부채에 대한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은 단기 부채상환능력이 양호하고, 향후 경영을 위한 자금조달에 유리하다. 송성환·권성훈·유경진·배영임(2010)의 벤처 기업의 생존 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유동비율이 벤처기업의 생존과 도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강미, 2009).

자기자본비율은 기업의 총 자산으로부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다. 반대로 부채비율은 자본으로부터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자기자본비율은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높고 기업의 도산 위험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상호, 1998). 반면에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며 기업의 생존 기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송동섭·심재우, 2010).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3) 활동성

활동성은 기업이 투자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매출액에 대해 각 자산의 회전율로 표시되어진다(김권중, 김문철, 2008).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등으로 기업의 활동성을 평가할 수 있다.

총자산회전율은 연간 매출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본총액이 1년에 몇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투입한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이다.

라. 기술 혁신

기업의 혁신 활동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혁신활동은 연구 개발지, 연구 집약도, 특허 수 등의 변수로 측정된다. Audretsch(1991)는 혁신활동이 기업의 생존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수연(2000)은 Cox비례위험모형으로 한국 상장기업들을 분석하여 혁신이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높게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Kalbfleisch and Prentice(1980); Cefis and Marsili(2005); Kang & Lee(2009); 조승무(2016)의 연구 결과, 혁신 활동은 기업의 생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기업의 생존성을 위협하지만 혁신 성과의 일종인 생산 과정의 자동화는 기업의 생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마. 진입유형

한 기업이 외국 시장에 진입하기로 결정하면 최적의 진입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적당한 진입 방식 선택은 해외 활동 성공 가능성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기 때문이다(Root, 1987). 해외직접투자에는 합작투자법인과 단독투자법인 두 가지의 진입방식이 있다.

합작투자는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합작투자법인으로 설립된다. 단독투자 법인은 한 기업이 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 시장에 단독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신설 기업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방법과 둘째, 현지 국가에 이미 설립된 기업을 인수하여 그 기업의 제품과 촉진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해외직접투자는 신설투자보다는 인수합병의 형태를 가진다(1998년~2005년에 UN 통계자료).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투자 방식은 달랐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3분의 1만이 인수합병의 형태였다. 개발도상국에서 인수합병 비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인수할 만한 우수한 기업이 적다는 것일 수 있다.

(1)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의 장단점

합작투자 방식이 선호되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기업은 지역 파트너가 지니고 있는 경쟁 환경, 문화, 언어, 정치 시스템 등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둘째, 경영자는 단독투자보다 합작투자가 덜 위험하다고 믿을 수 있다. 개발비용과 신규 투자 위험이 클 때 기업은 합작투자를 통해 이런 비용과 위험을 현지 파트너와 분담할 수 있다. 셋째, 많은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오직 합작투자 법인만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진출 방식이 되곤 한다.

D.G.Bradley(1977)의 연구에 따르면 현지 기업과 합작하면 현지 정부의 간섭을 받을 위험이 줄어든다고 한다. 이런 중대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작투자 법인의 설립에는 약점이 있다.

첫째, 합작투자에 참여한 기업은 자신의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파트너 기업에 주어야 하는 위험을 안게 된다. 둘째, 합작투자를 통해서는 경험 곡선이나 입지 경제성 실현에 필요한 수준의 강력한 통제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들의 공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통제 권한도 가질 수 없다. 셋째, 투자한 기업들의 목표가 변함에 따라 전략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면 공동 운영 계약이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합작투자에서 전략과 목표에 대한 이해관계 상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이런 갈등은 다른 국적을 가진 기업들의 합작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며 때로는 이런 갈등은 합작투자법인의 해체를 낳기도 한다 (Tony Kobayashi, 1992)

반면에 외국 시장에서 단독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장점은 첫째, 기업의 경쟁 우위가 기술적인 우위에서 나타날 경우 단독투자 방식은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보다 적합한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단독투자 방식은 여러 국가의 사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권한은 한 국가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다른 국가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분배하는 글로벌 전략 조정을 계획하는데 필수적이다. 셋째, 단독투자 방식은 기업이 경험 곡선과 입지 경제성을 실현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 발생한 이익의 100% 모두를 가져올 수 있다.

단독투자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다. 자본투자의 관점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취하는 기업들은 해외 사업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법인 설립 사이의 선택은 쉬운 것이 아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다. 대개 선택은 기업이 직면한 상황에 의

존된다. 예를 들어, 친숙하지 않은 국가에 진입하려고 할 때, 현지 국가의 정부가 외국인이 소유한 기업에게 차별을 한 적이 있다면 기업은 현지기업과 함께하는 합작투자 법인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기업의 핵심역량이 독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단독투자 법인을 설립할 것이다.

(2) 진입 전략과 자회사 생존

진입 방식이 (자회사) 자회사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적합한 진입전략 선택은 해외활동 성공 가능성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Root, 1987).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의 진입방식은 해외자회사 생존에 관련되어 있다. 이는 진입방식 각각이 위험수준과 조정비용 등의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한병섭·김익수, 2004).

첫째, 위험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경영자가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시장진입이 단독의 진입방식보다 덜 위험해서 생존율이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Beamish and Bank(1987), Woodcock et al(1993)의 분석 결과, 이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단독투자를 통한 진입 기업이 합작으로 진입하는 기업보다 낮은 퇴출 비율을 보일 수 있다.

해외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존 현지 파트너와 합작하면 현지 시장에서 불확실성의 위험을 낮추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다. 해외시장에서 처음에 투자하는 신생 투자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존 기업과 합작할 때 초기의 불리성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투자 상대국 환경 측면만을 고려한 감이 없지 않다. 즉 자회사와 모기업, 자회사 간 관계성, 자회사의 특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Vanhonacker(1997)의 연구에 따라, 단독 투자인 경우, 현지법인 설

립부터 철수까지 경영 통제를 할 수 있어, 합작투자의 경우 합작파트너와의 기업문화 차이나 이익의 갈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통제권을 가진 단독투자 방식이 합작투자 방식보다 높은 성과를 볼 수 있다.

둘째, 비용과 관련된 이론적 논거에 따르면, 특정 진입 방식의 자원소유 정도가 높을수록 투자를 보충하고 수익을 내기가 더욱 힘들다 (Chowdhury, 1992). 단독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기업들은 특정 해외시장에서 성공적이었던 관행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단독투자 법인 설립 기업들은 최소한의 자원에 관련된 비용에 부딪히게 된다(Woodcock et al, 1994). 합작투자인 경우 파트너를 잘 선택하기 위해 부가적 자원과 비용을 활용해야 하고 합작파트너의 자원을 결합할 때도 부가적 문제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합작투자의 경우 단독투자보다 더 높은 비용을 요하게 된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진입방식의 선택이 자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 특히 자회사 생존이나 철수와 관련된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진입 방식 선택이 자회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한병섭, 2004)

2. 기업의 외적 요인

가. 산업특성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산업간 경쟁 정도가 기업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창업율이 높은 산업에서 신생 기업은 다른 기존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진입 후 신생기업의 생존은 더욱 어렵게 된다. 하지만 산업성장이 빠른 산업에 대한 기업의 시장 진입은 타 산업의 경쟁자들

과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 산업에서 기업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

Dunne(1988)의 연구 결과, 시장에서 산업이 비교적 재편성이 높은 산업과 재편성이 낮은 산업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산업 특성이 기업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시장의 경쟁도가 기업 생존에 영향을 주고, 기업 간 경쟁은 기업의 퇴출비율을 증가시킨다 즉, 시장에서 경쟁자의 수가 많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치열한 경쟁은 기업의 퇴출을 증가시킨다. 기업 간 경쟁력은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을 가져오고 시장 집중의 증가는 소수의 기업 간 담합을 촉진시킨다. 신생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기존 기업이 담합적 행동은 기업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준다(Mata & Portugal, 1994)

둘째, 신생 기업이 진입하는 산업의 성장성이 기업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데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은 신생 기업의 퇴출 가능성을 낮추는 산업 환경을 조성한다(Boeri & Bellmanm, 1995). 소규모 신생 기업은 경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얻는 것보다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산업에서 성장하고 생존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그 이유로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산업의 경우 신생 기업은 기존의 기업으로부터 고객이 유입되어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Gort & Klepper, 1982).

나. 입지선택

(1) 산업입지의 이론적 정의

산업입지란 산업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공간이다. 산업입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구분을 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의 공간상의 이동

경향에 관한 논의로서 대도시 지향론과 탈 대도시 지향론이 있다. 하나는 산업체의 공간적 분포 형태에 대한 논의로서 집적 지향론과 분산 지향론이 있다(박종화·이기철, 2006)

대도시 입지의 장점, 예컨대 다양한 생활 편의적 인프라의 존재, 거대한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리성, 풍부한 노동력의 용이한 접근 가능성, 금융, 설계, 컨설팅 등 서비스의 존재 등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대도시로 입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에 대도시의 단점, 예컨대 높은 생활비 부담, 교통 혼잡,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 발생률 등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로부터 벗어나서 입지하고자 하는 점 등은 많은 연구자들의 지식적인 관심 사항이었다.

첨단산업일수록 법률이나 금융 등 고급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 비공식 정보와 지식 획득 가능성의 증대,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과의 지식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 등으로 대도시 지향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다(Nijkamp et al.,1994).

산업입지 과정에서 대도시 지향론이 있는데 반대로 탈 대도시 지향론도 있다. 이도향농가설(urban to rural migration hypothesis), 생산비가설(production costs hypothesis), 빈공간가설(vacant space hypothesis) 등이 대표적인 탈 도시 지향이론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과 같은 곳에서 생산하거나 거주한다는 이도향농가설, 포화된 도시 보다 개발의 여지가 높은 도시 주변으로 산업이 이동해 간다고 보는 빈공간가설, 도시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한 도시 주변 및 외곽에 초점을 두는 생산비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이 입지할 때 특정한 장소를 기점으로 집적 입지하는지 또는 특정한 기점이 없이 흩어져서 입지하는지가 토지 이용 측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집적 지향론의 기본적인 논거는 집적 경제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산업 집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동질적 또는 이질적 산업들이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 집적함으로써 내부 경제, 국제화 경제, 도시화 경제 등을 가져오는데, 그 이점을 향유하기 위해 산업들이 같은 장소에 모이게 된다는 것이다(Maki & Lichty, 2000).

Alfred Marshall(1882)은 집적 경제에 관한 “산업 지구”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생산의 효율성은 단일 기업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아도 “일정한 장소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집중하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동질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이질적인 경우에도 산업 집적의 이점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Porter(1998)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변수로서 산업의 집적 현상에 주목하고 산업 간 공간적 근접성과 지역에서의 뿌리내림,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1980년대에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를 대체하는 생산 형태로서 유연생산 체제 이론이 부각되었다. 포스트포디즘하의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의 생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산업체들은 유연적 생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체들은 한편으로 기업 조직을 전문 중소기업 단위로 분절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전문 기업들이 복잡하고 긴밀한 연계를 추구하는 이중적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 간에 연계 비용 내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혁신적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역 단위의 집적이 창출된다는 것이다(Camagni, 1991; Nijkamp et al, 1994; 권오혁, 1999).

이와 대조적으로 산업 입지 형태가 분산형을 나타낼 것이라는 주장은 일부 정보화 이론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1970년~1980년에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통신 방법의 개선과 통신비용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

다. 이와 같은 추세는 산업 입지 형태의 공간적 분산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정보 통신 산업의 발전은 기업 입지 형태에서 집중화 경향을 촉진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통신의 발달은 교통 수요를 오히려 증가시키게 되고, 연구 개발 활동과 같은 고부가가치 창출 행위는 제반 중추 관리 기능들과의 대면적인 접촉을 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상에 집적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권오혁, 1995).

(2) 입지선정과 기업생존

입지란 기업의 지리적인 위치로서 입지 선정의 적정여부가 앞으로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생산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입지 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장 시설이 완비되고 나면 웬만큼 큰 이유가 없이 쉽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입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송비용이 많이 들거나 적합한 노동력의 확보가 어려울 때 다른 기업에 대한 경쟁적 이점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기업의 도시 지역 입지 여부, 산업의 다양성, 같은 산업에 속한 창업 기업의 수 등을 활용하여 집적 경제와 관련한 외부효과와 일부 요소들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공간적 외부 효과나 지역적 특성이 기업 생존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Buss and Lin(1990)은 기업의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입지한 신생 기업 간 생존기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에 입지한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도시에 입지한 기업보다 낮다는 통계적인 유의점이 확인되었다. Todtling & Wasenbock(2003)은 입지 선정이 기업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 지구와 농촌에서의 창업 활동은 도시 지역보

다 낮으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 구조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존율의 차이는 통계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에 Fotopoulos and Louri(2000)은 도시 지역에 입지한 기업이 비대도시 지역에 입지한 기업보다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 3절 빈증성 지역의 외국인 투자현황

1. 빈증성의 경제 현황

베트남 남동부의 호치민시 북쪽에 위치한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은 호치민시(Ho Chi Minh), 동나이성(Dong Nai Province), 바리아-붕타우성(Ba Ria-Vung Tau Province)과 함께 남부 지역 핵심경제구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베트남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호치민시의 무역, 서비스, 항구, 국제공항 및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전체 면적 2,695 km²에 3시, 6군, 91현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 빈증성은 2012년에 특별시 승격을 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빈증성은 호치민시 중심에서 20km, Tan Son Nhat 국제공항에서 22km, Sai Gon 항구에서 22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

빈증성에 170만 인구의 약 60%인 100만 명이 노동 가능 인구이며, 해마다 9천명 이상의 고교 학력 이상의 졸업자와 정규 기술 훈련을 받은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빈증성은 1999년대 농업중심의 경제구조에서 2000년대 공업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 구조로 변화하였고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다. 빈증성의 2017년 기준으로 평균 GDP 성장률은 9.15%이

며 베트남 전체의 GDP에서 7%를 차지하였다. 경제 구조는 공업은 63.99%, 서비스업은 23.68%, 농업 3.74%이다

2017년에 빈증성의 수출금액 280억 달러였고, 2016년에 비해 17,6% 증가하였다. 수입금액 230억 달러, 2016년에 비해 18,2% 증가하였다.

빈증성의 주도로인 13번 국도가 1번국도 및 주요간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2013년에 완공한 MPIP-TAN VAN 항 간 고속도로는 신공항 및 주요 항구들과 연결되어 대폭적인 운송 시간 단축 및 물류비 감소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2. 2017년 외국인 투자 동향

빈증성의 2017년 말 기준 총 외국인 직접투자(신규, 증액, 출자 및 주식 매입)는 28억 달러, 430건이다. 2018년 2월 20일까지 누계 기준, 빈증성 총 외국인 직접투자는 306억 달러이며, 베트남 총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에 9.5%를 차지하였고, 전국적으로 지역별 외국인 투자금액 순위에는 2위이다. 빈증성에 투자하는 최대 국가 순위는 대만(59억 달러), 일본(52억 달러), 한국(29억 달러), 싱가포르(28억 달러)이다.

<표 3-1> 베트남 빈증성 국가별투자 누적 액

(2017년 12월말 기준)

구분	국가	투자안	투자자본 (USD)
1	대만	789	4,962,949,089
2	일본	282	4,884,743,536
3	싱가포르	225	4,024,673,968
4	Samoa	94	2,836,997,967

5	한국	680	2,741,426,570
6	영국	151	2,105,311,732
7	홍콩	150	1,367,616,160
8	Cayman Islands	15	1,212,590,953
9	미국	112	946,515,098
10	말레이시아	87	751,818,383
11	중국	267	746,974,979
12	Dutch	29	669,225,650
13	태국	30	568,647,926
14	Seychelles	44	298,296,476
15	Brunei Darussalam	58	283,195,000
16	British West Indies	5	120,931,090
17	프랑스	36	116,355,116
18	호주	27	113,520,195
19	Mauritius	21	109,503,600
20	인디	11	107,355,394
21	Belize	12	102,589,410
22	Luxembourg	3	81,075,240
23	Swiss	15	75,420,597
24	Philippines	6	74,200,000
25	오스트리아	4	68,550,000
26	덴마크	13	67,216,700
27	인도네시아	12	67,059,174
28	이탈리	8	63,832,957
29	캐나다	15	49,825,000

30	키프로스	4	45,924,600
31	헝가리	1	40,000,000
32	독일	16	39,799,000
33	Bermuda	2	37,776,800
34	Liechtenstein	1	34,600,000
35	벨기에	4	34,250,000
36	Saint Vincent	1	30,000,000
37	노르웨이	3	24,575,672
38	Anguilla	2	20,550,000
39	스웨덴	11	19,661,673
40	마카오	3	16,700,000
41	New Zealand	5	13,933,000
42	스페인	7	11,006,567
43	El Salvador	1	10,000,000
44	Marshall Islands	2	7,500,000
45	Island of Nevis	1	6,000,000
46	러시아	3	5,850,000
47	Andorra	1	3,800,000
48	Turks & Caicos Islands	2	3,100,000
49	Channel Islands	1	2,300,000
50	Guatemala	1	1,866,185
51	핀란드	2	1,600,000
52	Panama	1	1,500,000
53	Campuchia	1	1,090,908

54	사우디아라비아	1	1,000,000
55	모로코	1	1,000,000
56	남아프리카	1	1,000,000
57	Pakistan	1	1,000,000
58	Rumani	1	700,000
59	터키	1	500,000
60	United States Virgin Islands	1	500,000
61	Kuwait	1	400,000
62	체코	1	375,000
합 계		3,286	30,038,277,365

자료: 빈증성 투자계획부

IV.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제 1절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초점은 베트남 빈증성 지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생존요인을 분석하고 영향력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요 생존 요인으로 기업 특성변수와 지역 특성변수로 구분하였다. 기업의 특성 변수는 초기 투자 규모, 현재의 기업 규모(종업원 수), 기업의 투자 형태, 최고 경영자의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역 특성에는 산업 단지 입지 여부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요인 변수들 간에 어떤 영향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의 생존에 관한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고, 그와 관련된 경영 전략 및 기업 분석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규모가 기업 생존에 의미가 있는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조직 생태학의 주요 논의점인 조직 규모에 따라 조직 생존에 대한 영향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소규모 기업의 불리”가 존재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초기 투자 규모가 기업에 영향을 보이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큰 규모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은 규모의 크기에 따라 관련 기업과 주변 관계 다들의 간의 밀월하기가 형성되어 최초 자산의 유효성만큼의 안정기를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로 시장에 진입하면 현지국가의 기존 기업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투자 규모를 설정하여 해당 논의에 대한 한국 자회사의 영향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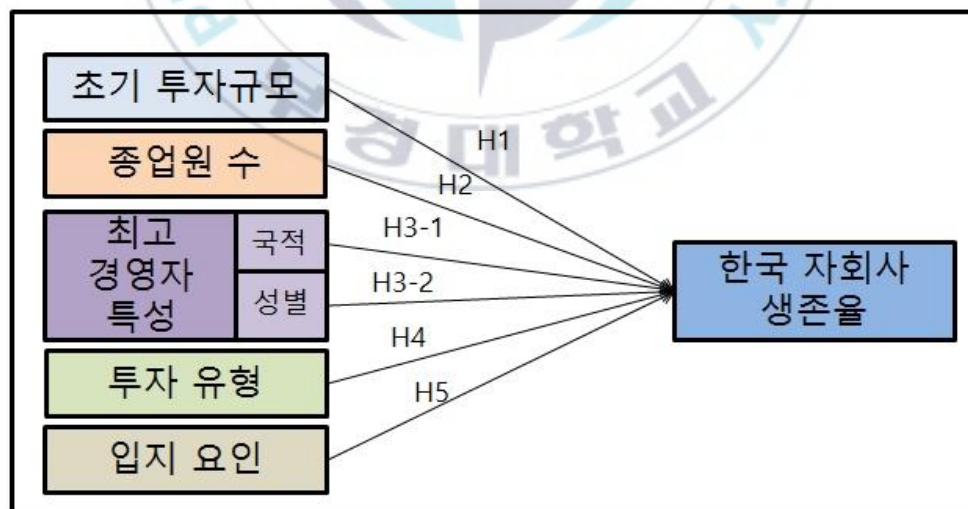
셋째, 최고 경영자의 특성이 기업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한다. 조직 생태학과 최고 경영층 이론에 따르면 최고 경영자의 특성

은 각인 효과로 기업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자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이러한 영향력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단독 투자와 합작 투자 등의 투자 유형은 기업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비용적 이론과 통제 측면에서 단독 투자 방식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합작 투자로 진입하는 기업보다 더 우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 투자유형(단독 투자 vs 합작 투자)에 따라 한국 자회사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지 본 연구를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섯째, 산업 단지에 입지 여부가 기업 생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다. 입지란 기업의 지리적인 위치로서 입지 선정의 적정 여부가 앞으로 기업의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입지의 이론을 통하여 공작적 외부 효과가 한국 자회사 생존에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4-1>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하여 한국 자회사의 초기 투자 자본, 현재 기업규모(현재 종업원 수), 투자 유형(합작투자 vs 단독 투자), 최고 경영자(성별,

국적), 입지 선택(산업공단 입지 여부) 등의 다섯 가지 구성 요인에 따라 <그림 4-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제 2절 가설설정

1. 초기 투자규모에 따른 가설

초기 투자 규모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해외시장에 큰 규모로 진입하는 기업의 생존율은 소규모로 진입하는 기업보다 높아진다(Dunne et al, 1989; Mata & Portugal, 1994; Mata et al, 1995). 초기 규모를 볼 때, 규모가 작은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큰 기업은 일반적으로 더욱 높은 신뢰성과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임을 얻는데 유리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빨리 시장에서 정통성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다(나상균·이준수, 2007). 또한 대규모의 초기 투자 규모는 기업 경영 규모의 최적화를 실현하는 것에 유리하므로 기업 생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이근우·강만수·박상규, 2007).

이상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초기 투자규모가 큰 한국 자회사일수록 자회사의 생존율이 높아질 것이다.

2. 현재의 기업 규모에 따른 가설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에서 대규모로 진출하는 자회사의 생존 가능성이 소규모로 진입하는 자회사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기업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진출하는 해외 자회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신생 기업의 창업 초기 불확실성은 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창업 기업은 비교적으로 작은 규모를 선택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대규모로 진입하는 경우보다 소규모로 진입하는 기업은 기존 기업으로부터 공격적인 행동을 덜 받게 되어 높은 생존율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경우의 연구에서는 초기 투자 규모로 기업 생존과 연관하는 기업의 성장을 평가 못 한다(Mata el al, 1995).

이상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현재 규모(종업원 수)가 큰 한국 자회사일수록 자회사의 생존율이 높아질 것이다.

3. 최고 경영자의 특성에 대한 가설

최고 경영자의 특성에 대한 가설은 자원의존이론(Pfeffer and Salancik, 1978), 조직 생태학 이론, 최고 경영층 이론(Hambrich & Mason, 1984)에 기반을 둔다.

첫째,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자원을 습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자원의존이론은 환경에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최고 경영자의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리더의 역할은 환경에 대한 요구와 제약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역할이다. 김양민·김승주(2013)는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으로 창업자의 지도가 기업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인 최고경영자인 경우에만 통계적인 유의가 보인다고 하였다.

둘째, 조직 생태학 이론에 따르면 기업 초기의 최고 경영자의 특성은 기업 내부에 각인되어 기업의 정책과 절차로 나타나며, 지속성을 가지고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Stinchcombe, 1965; Boeker, 1989; Nelson, 2013). 최고경영층 이론에서의 최고 경영자의 특성은 관찰

가능한 경영자의 특성으로서 연령, 국적, 재임기간, 학력, 성별, 경험 등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이 포함된다고 한다(Hambrick & Mason, 1984). 최고 경영자의 특성 및 초기 내부 자원의 각인이 기업의 성과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다(Bamford, Vernon, Nicholas, & Qureshi, 1999; Boeker, 1989; Hambrick & Mason, 1984; Hambrick, Cho, & Chen, 1996; Shepherd, Ettenson, & Crouch, 2000).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최고 경영자의 연령, 경험, 학문, 성별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해외 자회. 본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이용하는 CEO의 성별 외에 CEO의 국적을 설명 변수로 선택하여 한국 자회사 생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해외자회사의 CEO를 선정하는 의사 결정에서 모기업 국적의 경영자를 파견하느냐, 혹은 해외자회사가 위치한 현지국가 국적의 경영자를 선임하느냐 하는 의사결정은 자회사의 경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Perlmutter, 1969).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본사 국적을 가진 CEO를 파견한다면 본사와 자회사 간의 지식의 공유와 이전, 자회사의 통제에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모기업의 국적인 CEO는 자회사의 현지 직원을 직접 감시, 관리하는 행동적 통제(behavioral control)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가치와 규범을 현지 직원들에게 주입시키는 문화적 통제(culture control)를 가능 한다(Egelhoff, 1984; O'Donnell, 2000).

반면, 현지 국적CEO 임명은 외국 시장의 진입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Hymer, 1976). 해외 시장에 발생하는 문화적, 제도적 장벽 등으로 일반 비용을 현지인 CEO는 현지 국가에 배태되어 있는 경영 관행과 특유의 지식들을 기업에 내부화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Berry & Sakakibara, 2008).

본 연구에서 최고 경영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3-1과 가설 3-2를 설정하였다.

가설 3-1 한국인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베트남인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3-2 남성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여성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

4. 투자유형에 대한 가설

기업이 생존 및 지속적 성장하기 위해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국 시장의 한계를 벗어난 규모의 경제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도전하게 되고 있다. 적당한 진입 전략은 기업의 해외활동 성공의 가능성의 주요한 결정 요인이다(Robert, 1987).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의 진입방식은 해외자회사 생존에 관련되어 있다. 이는 진입 방식 각각이 위험 수준과 조정비용 등의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한병섭·김익수, 2004).

위험수준의 측면에 보면 Beamish & Bank(1987), Woodcock et al(1993)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독투자를 통한 진입기업이 합작으로 진입하는 기업보다 낮은 시장 퇴출비율을 보인다고 한다.

비용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 의하면 단독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기업들은 특정 해외시장에서 성공적이었던 관행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단독 투자법인 설립 기업들은 최소한의 자원에 관련 비용에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Woodcock et al, 1994).

합작 투자인 경우 파트너를 선택 잘 하기 위해 부가적 자원과 비용을 활용해야 하고 합작 파트너의 자원을 결합할 때도 부가적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작투자의 경우 단독투자보다 더 높은 비용을 요하

게 된다.

이상의 위험 수준과 비용 측면을 보면, 단독투자 방식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합작 투자로 진출한 기업보다 더 우월한 성과를 내고 생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Hennart, 1991; Yamawaki, 1997, Dinh Thi Thanh Binh, 2014).

또한 단독투자의 형태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비중이 88.1%인데 비해 합작투자는 10.6%에 그치고 있다(2017년 베트남 통계청). 한국 기업은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베트남 해외투자법에 따르면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 투자하는 경우 사장과 제1부 사장 중 어느 한 자리가 베트남 측 당사자로 선출되어야 한다. 베트남 측은 이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 투자가 경영권의 상당 부분이 제약을 당할 수밖에 없다.

둘째, 합작투자로 진입하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기술 및 경영 자원의 상호 보완성, 전략적 적합성 등의 기준으로 파트너를 선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의 재정적 자원, 기술, 경영관리 등의 경쟁 역량이 부족해서 한국 투자 파트너와 격차가 많다. 따라서 합작투자로 진출하면 베트남 파트너의 통제력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 노출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투자 형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기 위해 투자 유형에 따른 가설 4를 설정하였다.

가설 4: 단독투자로 진출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합작투자로 진출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

5. 입지 선택에 대한 가설

입지 선택에 대한 가설은 Alfred Marshall(1890)의 집적경제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집적지향이론에서 집적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각종 중간재와 노동력의 투입비용이 감소하고 기업 간 신속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확산이 가능해져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트남 투자입지의 유형은 크게 산업단지와 일반지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기존 연구를 보면 공단에 입지하는 기업생존 가능성이 일반기업보다 높다는 것이다(한병섭, 2015; Dinh Thi Thanh Binh, 2014)

산업단지는 일반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고 공단 관리위원회가 행정 수속을 대행해 주고 제반 관리 업무를 해 주기 때문에 신규 입지나 기업 경영 및 활동 과정에 편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토지 임대비가 비싸고 관리비 부담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일반 지역은 공단에 비해 인프라가 다소 낙후되어 있으나 임차료가 저렴하고 토지 임차료와 별도로 임차 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토지 보상비를 지방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반면에 일반 지역에 입지하면 복잡한 토지 소유 관계가 얽혀서 이를 해결하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지역 입지와 공단 입지 어떤 유형은 기업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가설 5를 설정하였다.

가설 5: 공단에 입지한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일반지역에 입지한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

<표4-1>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의 주요 요인과 가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가설 및 주요 요인

구분	가설	연구자
초기 투자규모	가설1: 초기투자규모가 큰 한국 자회사일수록 자회사의 생존율이 높아질 것이다.	Dunne et al, 1989, 이근우, 강만수, 박상규, 2007
현재 기업규모	가설2: 현재규모(종업원 수)가 큰 한국 자회사일수록 자회사의 생존율이 높아질 것이다.	Mata, Portugal & Guimares (1995)
CEO 국적	가설3-1: 한국인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베트남인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	김양민, 김승주(2013)
CEO 성별	가설3-2: 남성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여성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	
투자유형	가설4: 단독투자로 진출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합작투자로 진출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	Yamawaki, 1997, Dinh Thi Thanh Binh, 2014
입지선택	가설5: 공단에 입지한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일반지역에 입지한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	한병섭, 2005; Dinh Thi Thanh Binh, 2014

V. 연구방법

제1절 표본의 선정과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 베트남 빈증성 투자계획부에서 제공하는 2005-2015년 사이에 설립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부문 한국 기업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종사자, 기업 주소, 기업 생존 여부와 관련 정보 등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베트남 국세청 정보시스템(<https://infodoanhnghiep.com>)과 베트남 중남부 한인상공인연합회 코참(kocham: www.kocham.kr)에서 발간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베트남 빈증성 투자계획부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허가발급을 신청하는 한국 기업의 자료에 한국 자회사의 초기 투자금액, 기업명, 주소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국세청과 베트남 중남부한인연합회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빈증성 투자계획부의 자료에서 조회되는 기업명으로 기업의 최고 경영자, 종업원 수, 설립일, 생존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생존 분석에서는 설립시기와 폐업시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폐업 기업은 폐업 신고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고, 폐업 신고일, 상장 폐지일, 어음 부도일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폐업일이 다양했다. 그래서 베트남 국회는 2015년에 통과한 제 68/2014/QH13호 기업법으로 기업의 폐업은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세금번호가 해제되면 해당 기업이 폐업된 것으로 간주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 자회사의 폐업 기간은 국세청의 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세금번호 해제일”이라는 뜻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자회사의 설립기간은 베트남 투자계획부에 투자 신고 일에 따라 정의된다.

이와 같은 자료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축된 분석 자료는 전국적으로 2005년~2015년 진출 한국 자회사 5,350개사 중에 베트남 빈증성 지역에 위치한 435개 한국 자회사이다. 2005년-2015년 연구기간 중 폐업한 기업은 91개, 중도 절단된 기업은 344개로 폐업율이 2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그림5-1>와 같은 유형으로 한국 자회사의 생존 기간은 구분할 수 있다. 연구 시작 시점인 2005년에 설립되어 중도에 폐업한 기업 A, 같은 시점에 설립되었는데 연구 종료 시점인 2015년까지 살아남은 기업 B, 연구 중간 시점인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설립하여 중간 폐업한 기업 C, 2005년부터 설립하여 2015년까지 살아남은 기업 D로 구분이 된다.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베트남 빈증성 지역에 투자한 한국 자회사 생존과 관련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더미 변수로 생존여부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2005년-2015년 관측 기간 동안 표본에 속한 기업들이 폐업되었다면 “0”의 값을 부여했으며, 관측 기간 동안 생존했다면 “1”의 값을 부여하였다.

2. 독립변수

가. 초기 투자규모

많은 기존 연구를 통하여 초기투자 규모와 기업 생존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투자규모는 빈증성 투자계획부에 등록된 초기 투자 자본으로 측정된다. 소규모이라면 “0”, 중규모 “1”, 대규모 “2” 등의 값을 부여했다.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는 매출액이나 종업원수로 측정된다. 본 연구의 기업의 규모 구분 기준은 베트남 정부의 제 56/2009/ ND-CP호 집행령에 따르기로 한다.

<표5-1> 기업 규모 구분 기준

규모 분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근로자수	자본금	근로자수	자본금	근로자수	자본금
농업, 임업, 수산업	10~200명	40만 불 이하	200~300명	40만~200만 불	300명 이상	200만 불 이상
제조업, 건설업	10~200명	40만 불 이하	200~300명	40만~200만 불	300명 이상	200만 불 이상
서비스업	10~50명	20만 불 이하	50~100명	20만~100만 불	100명 이상	100만 불 이상

베트남 법령에 따른 기업 규모 구분 기준은 <표5-1>와 같이 정리되었다.

나. 현재의 기업규모

현재의 기업규모의 척도로는 해당 년의 종업원 수가 사용된다(김재구, 1996). 본 연구에서의 현재의 기업규모(종업원 수)는 연구가 종료할 때까지 생존한 기업인 경우 2015년 기준의 종업원 수이며, 2015년 전에 폐업한 경우 폐업 해당 년에 종업원 수이다. 소규모의 종업원 수 “0”, 중규모 “1”, 대규모 “2” 등의 값을 부여하였다.

다. 최고 경영자의 특성

최고 경영자의 성별에는 여성이라면 “0”, 남성 “1”로 표기하였고. 최고 경영자의 국적에는 베트남인 경우 “0”, 한국인 “1”의 값을 부여하였다.

라. 투자유형

투자유형에 따라 합작투자인 경우 “0”, 단독투자인 경우 “1”로 표기하였다. 한국 기업의 투자유형은 베트남 국세청의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마. 진입유형

본 연구에서의 진입 유형은 일반지역에 입지하면 “0”, 산업공단에 입지하면 “1” 등의 값을 부여하였다.

모두 변수들은 <표5-2>와 같이 정리되었다.

<표5-2> 변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 명	측정	자료원
초기투자규모	초기투자자본	소기업 = 0 중기업 = 1 대기업 = 2	빈증성 투자계획부
현재규모	종업원 수	소기업 = 0 중기업 = 1 대기업 = 2	베트남 국세청
최고 경영자의 특성	최고 경영자의 성별	여성 = 0 남성 = 1	베트남 국세청
	최고 경영자의 국적	베트남인 = 0 한국인 = 1	
투자유형	투자유형	합작투자 = 0 단독투자 = 1	빈증성 투자계획부
입지유형	입지유형	일반지역 = 0 산업공단 = 1	빈증성 투자계획부

제 3절 연구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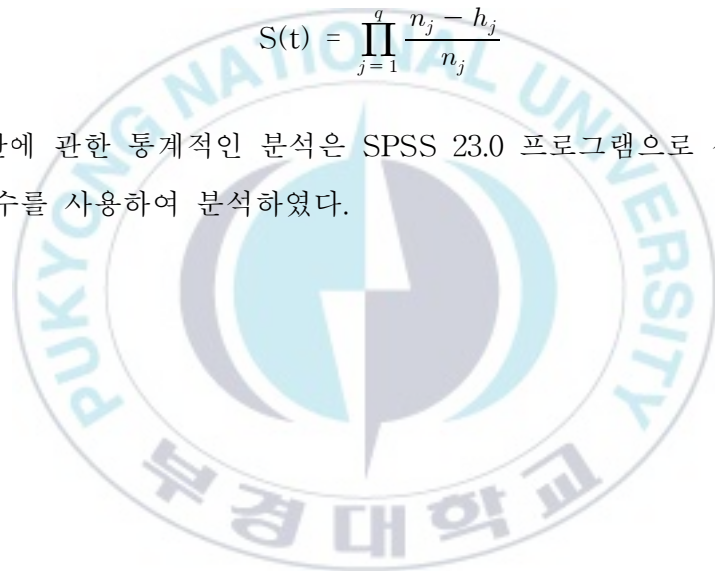
본 연구의 생존함수는 비모수적인 방법인 카플란-마이어의 누적 한계 추정법(product limit estimator)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n개 기업의 생존 기간이 q 개로 구분이 된다고 가정하며 그 시점을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t_0 \leq t_1 \leq \dots \leq t_q$ ($t_0 = 0$)이다. 이 때 카플란-마이어 생존함수 $S(t)$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즉

$$S(t) = \prod_{t_i \leq t} P_j$$

여기서 P_j 는 시점 t_j 에서 t_j 시점까지 생존한 기업의 수를 t_{j-1} 시점까지 생존한 기업의 수로 나눈 값이다. 기업의 생존 여부에 대한 관측이 매 시점마다 이산 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t_j 시점 직전, 즉 t_{j-1} 에는 계속 생존하고 있던 기업 수를 n_j 라고 하고 t_{j-1} 시점에는 생존하고 있다가 t_j 시점에 폐업된 기업수를 h_j 라고 하면 Kaplan-Meier 생존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와 같은 Kaplan-Meier 추정치는 어떠한 표본 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S(t) = \prod_{j=1}^q \frac{n_j - h_j}{n_j}$$

생존기간에 관한 통계적인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으로 생존율을 분석하는 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VI. 결과 분석

제 1절 표본의 현황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 빈증성 지역에 진출한 435개 한국 자회사이다. 다음의 <표 6-1>은 본 연구의 표본 빈도 분석 결과이다. 먼저 435개의 한국 자회사의 생존 현황을 살펴보면, 폐업한 자회사가 89개사(20.5%),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자회사 346개사(79.5%)를 차지하였다. 산업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389개사(8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건설업 62개사(10.6%), 서비스업 19개사(4.4%)의 분포를 보이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표 6-1> 표본의 빈도 분석 결과

구분	항목	빈도	비율(%)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생존현황	폐업	89	20.5	산업 유형	서비스	19	4.4
	생존	346	79.5		건설업	62	10.6
입지유형	일반지역	242	55.6		제조업	389	89.4
	산업단지	193	44.4	투자 형태	합작투자	23	5.3
CEO 국적	베트남	17	3.9		단독투자	412	94.7
	한국	418	96.1	CEO 성별	여성	77	17.7
					남성	358	82.3

입지 유형 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 지역에 입주한 자회사가 242개사(55.6%)이며 산업공단에 위치한 자회사가 193개사(44.4%)이었다. 투자형태를 살펴보면, 단독투자로 진출한 자회사가 412개사(94.7%)인데 합작투자로

진출한 자회사 23개사(5.3%)로 나타났다. 한편 최고 경영자의 국적은 베트남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가 17개사(3.9%)이며 한국 CEO를 가지는 자회사가 418개사(96.1%)이었다. 또한 최고 경영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 CEO가 77명(17.75)인데 남성 CEO가 359명(82.3%)을 차지하였다.

기초통계량<표 6-2>의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435개 한국 자회사의 초기 투자 자본은 최소 10만 불에서 최대는 601만 불의 투자 규모를 보였다. 현재의 근로자수도 최소 2명에서 최대 4,600명으로 다양하였다.

<표 6-2>기술통계량

(단위 : 불)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생존기간	435	0	10	5.55	3.294
현재의 근로자수	435	2	4600	295.92	581.669
초기투자자본	435	100,000	60,100,000	2,883,849	5,072,487

제 2절 생존함수 추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생명표법(life table method)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일정기간까지의 구간 생존 확률의 누적치인 누적생존율을 계산하고, 표본의 크기 50개가 넘어야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표 6-3>는 전체 베트남 빈증성 지역에 진출한 한국 자회사 435개 자료에 대한 생명표를 1년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6-1>은 누적생존함수, <그림6-2>위험 함수를 도식화 한 것이다. 처음 시작점 0년에서 1년 미만의 생존율은 435개 기업에서 시작해서 이 기간 중 중도 절단된 대상 기업은 45개가 있었고 0개에서 사망(폐업)이 발생하였다. 폐업 위험에

노출된 수는 412,500개이며 구간 끝의 누적 생존 비율은 1.00이다. 즉 “1년 미만”의 마지막 시점에서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이 “1.00” (100%)이다.

<표6-3> 전체 베트남 빈증성 지역에 진출한 한국 자회사 생명표

구간 시작 시간	구간화 입력 수	구간 중 취소 수	위험에 노출된 수	종료 이벤트의 수	종료 비율	생존 비율	구간의 누적 생존 비율	구간의 누적 생존 비율 표준오차	확률도	위험률
0	435	45	412.500	0	0.00	1.00	1.00	0.00	0.00	0.00
1	390	27	376.500	7	0.02	0.98	0.98	0.01	0.019	0.02
2	356	21	345.500	8	0.02	0.98	0.96	0.01	0.023	0.02
3	327	17	318.500	9	0.03	0.97	0.93	0.01	0.027	0.03
4	301	19	291.500	6	0.02	0.98	0.91	0.02	0.019	0.02
5	276	19	266.500	16	0.06	0.94	0.86	0.02	0.055	0.06
6	241	19	231.500	6	0.03	0.97	0.84	0.02	0.022	0.03
7	216	37	197.500	12	0.06	0.94	0.78	0.02	0.051	0.06
8	167	61	136.500	9	0.07	0.93	0.73	0.03	0.052	0.07
9	97	44	75.000	11	0.15	0.85	0.63	0.04	0.107	0.16
10	42	35	24.500	7	0.29	0.71	0.45	0.06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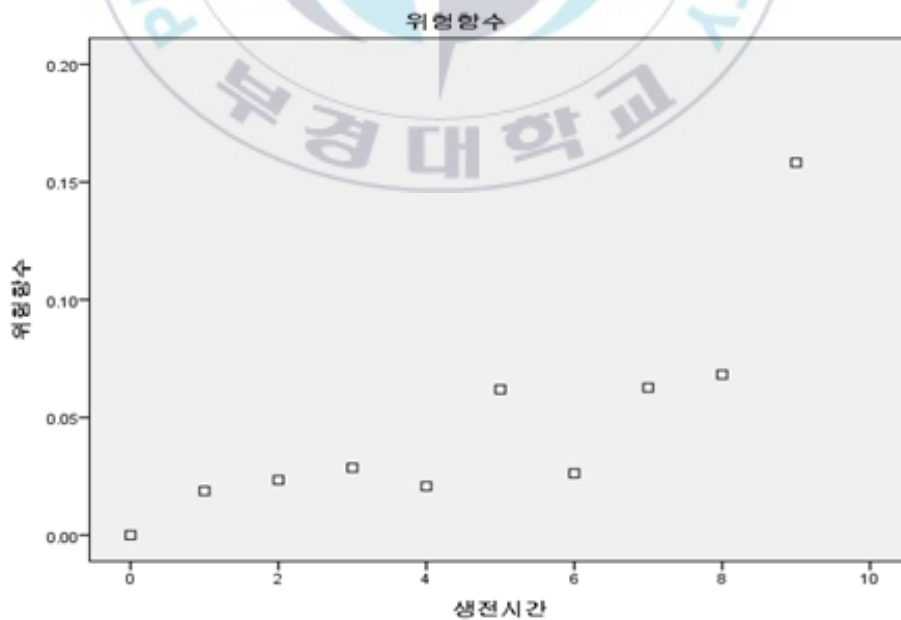
* a. 중위수 생존 시간은 10.00입니다.

1년에서 2년 미만 동안의 생존율은 390개 업체에서 시작해서 이 기간 중 중도 절단된 대상 기업은 27개가 있었고 27개에서 폐업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폐업 위험에 노출된 수는 376개사이며 구간 끝의 누적 생존 비율은 0.98이다. 즉 “1년 이상 2년 미만”의 마지막 시점에서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이 “0.98”(98%)이다. 따라서 베트남 빈증성 지역에 진출한 한국 자회사의 5년 누적 생존율이 86%이며 10년 누적 생존율은 45%로 나타났다.

<그림6-1> 한국자회사 전체 435개사의 생존 함수



<그림 6-2> 한국 자회사 전체 435개사의 위험 함수



제 3절 각 요인에 따라 생존율 추정 및 가설 검증

각 요인에 따라 생존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였다. 카플란-마이어는 종속변수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특정 시간의 사건의 발생 여부(생존 여부)를 나타내는데 종효된 사례는 “0”, 생존된 사례는 “1”로, 하나는 생존 시간을 입력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한국 자회사 생존을 더미 변수 처리하여 생존인 경우는 값을 “1”로 폐업인 경우는 “0”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 한 개씩을 대상으로 한국 자회사 생존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초기투자규모, 기업의 현재 규모, 최고 경영자의 국적, 최고 경영자의 성별, 투자 유형, 진입 유형 다섯 유목으로 측정한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Log-rank 방법을 사용하였다. Log-rank은 집단 간 차이를 사후 검증하는 방법이다.

1. 초기 투자규모

가. 집단별 생명표 해석

먼저 카플란-마이어 방법으로 한국 자회사의 규모 별로 누적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표6-4>에서 보듯이 소기업의 경우 “1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생존 비율이 94%이며, “4년 이상 5년 미만”에서 생존 비율이 46%이며, “10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이 0%이다. 이 결과로 볼 때 빈증성 지역에 소규모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누적 생존비율은 연구 초기(2005년)에 매우 높지만 5년까지 그 생존 비율이 많이 줄이며, 10년까지 소규모

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생존 가능성이 0%이다.

<표 6-4> 소규모로 진출한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소규모 초기투자규모	시간	상태	시간흐름에 따라 누적 생존 비율		누적 이벤트 수	남아 있는 케이스 수
			추정값	표준오차		
1	0.000	1.0			0	111
2	0.000	1.0			0	110
27	1.000	0.0			4	85
28	1.000	0.0	0.944	0.024	5	84
29	1.000	1.0			5	83
30	1.000	1.0			5	82
43	2.000	0.0			9	69
44	2.000	0.0	0.879	0.036	10	68
45	2.000	1.0			10	67
58	3.000	0.0			15	54
59	3.000	0.0	0.790	0.047	16	53
60	3.000	1.0			16	52
68	4.000	0.0			19	44
69	4.000	0.0	0.723	0.054	20	43
70	4.000	1.0			20	42
90	5.000	0.0			32	22
91	5.000	0.0	0.446	0.069	33	21
92	6.000	0.0			34	20
93	6.000	0.0			35	19
94	6.000	0.0	0.383	0.068	36	18
99	7.000	0.0			41	13
100	7.000	0.0			42	12
101	7.000	0.0	0.234	0.061	43	11
102	8.000	0.0			44	10
103	8.000	0.0			45	9
104	8.000	0.0			46	8

105	8.000	0.0	0.149	0.051	47	7
106	9.000	0.0			48	6
107	9.000	0.0			49	5
108	9.000	0.0	0.085	0.040	50	4
109	9.000	1.0			50	3
110	10.000	0.0			51	2
111	10.000	0.0			52	1
112	10.000	0.0	0.000	0.000	53	0

<표 6-5>에서 보듯이 중기업의 경우 “1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생존비율이 99%이며, “4년 이상 5년 미만”에서 생존비율이 93%이며, “10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누적생존율이 21%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베트남 빈증성 지역에 중규모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누적 생존비율은 연구 초기(2005년)부터 5년 후에도 매우 높지만 10년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폐업할 정도로 생존 비율이 매우 낮다(21%)

<표 6-5> 중규모로 진출한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중규모 초기투자규모	시간	상태	시간흐름에 따라 누적 생존 비율		누적 이벤트 수	남아 있는 케이스 수
			추정값	표준오차		
1	0.000	1.0			0	243
2	0.000	1.0			0	242
15	1.000	0.0			1	229
16	1.000	0.0	0.991	0.006	2	228
17	1.000	1.0			2	227
18	1.000	1.0			2	226
27	2.000	0.0			3	217
28	2.000	0.0			4	216
29	2.000	0.0	0.978	0.010	5	215
30	2.000	1.0			5	214
31	2.000	1.0			5	213
38	3.000	0.0			6	206
39	3.000	0.0			7	205

40	3.000	0.0	0.963	0.013	8	204
41	3.000	1.0			8	203
42	3.000	1.0			8	202
50	3.000	1.0			8	194
51	4.000	0.0			9	193
52	4.000	0.0	0.954	0.014	10	192
53	4.000	1.0			10	191
62	5.000	0.0			12	182
63	5.000	0.0	0.938	0.017	13	181
64	5.000	1.0			13	180
82	6.000	0.0			15	162
83	6.000	0.0	0.921	0.019	16	161
84	6.000	1.0			16	160
104	7.000	0.0			18	140
105	7.000	0.0			19	139
106	7.000	0.0			20	138
107	7.000	0.0	0.888	0.023	21	137
108	7.000	1.0			21	136
147	8.000	0.0			24	97
148	8.000	0.0			25	96
149	8.000	0.0	0.844	0.029	26	95
150	8.000	1.0			26	94
212	9.000	0.0			31	32
213	9.000	0.0			32	31
214	9.000	0.0			33	30
215	9.000	0.0	0.662	0.062	34	29
216	9.000	1.0			34	28
228	9.000	1.0			34	16
229	9.000	1.0			34	15
243	10.000	0.0	0.221	0.181	36	1
244	10.000	1.0			36	0

<표6-6>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경우 “1년 미만”에서 10년까지 생존비율은 94%이다. 이 결과로 볼 때 빈증성 지역에 대규모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누적 생존 비율은 연구 초기(2005년)부터 10년 후에도 매우 높다. 즉 대규모로 베트남 빈증성 지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94%로 나타났다.

<표6-6> 대규모로 진출한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대규모 초기투자규모	시간	상태	시간흐름에 따라 누적 생존 비율		누적 이벤트 수	남아 있는 케이스 수
			추정값	표준오차		
1	0.000	1.0			0	78
2	0.000	1.0			0	77
14	1.000	1.0			0	65
15	2.000	1.0			0	64
18	2.000	1.0			0	61
19	3.000	1.0			0	60
20	4.000	1.0			0	59
21	4.000	1.0			0	58
22	5.000	1.0			0	57
23	5.000	1.0			0	56
24	8.000	1.0			0	55
25	8.000	1.0			0	54
26	8.000	1.0			0	53
27	9.000	1.0			0	52
28	9.000	1.0			0	51
29	9.000	1.0			0	50
43	9.000	1.0			0	36
44	10.000	0.0			1	35
45	10.000	0.0	0.944	0.038	2	34
46	10.000	1.0			2	33
73	10.000	1.0			2	6
74	10.000	1.0			2	5
75	10.000	1.0			2	4
76	10.000	1.0			2	3
77	10.000	1.0			2	2
78	10.000	1.0			2	1
79	10.000	1.0			2	0

나. 중앙값 해석

<표6-7> 볼 때, 소기업의 평균값은 “5.786”로 소규모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평균 생존 시간이 “5.786”년이라는 의미한다. 중앙값은 “5.000”으로 소규모로 진입한 기업 전체의 절반가량이 5년 안에 폐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기업의 평균값은 “9.126”로 중규모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평균 생존 시간이 “9.126”년이라는 의미한다. 중앙값은 “10.000”으로 중규모로 진입한 기업 전체의 절반가량이 10년에 폐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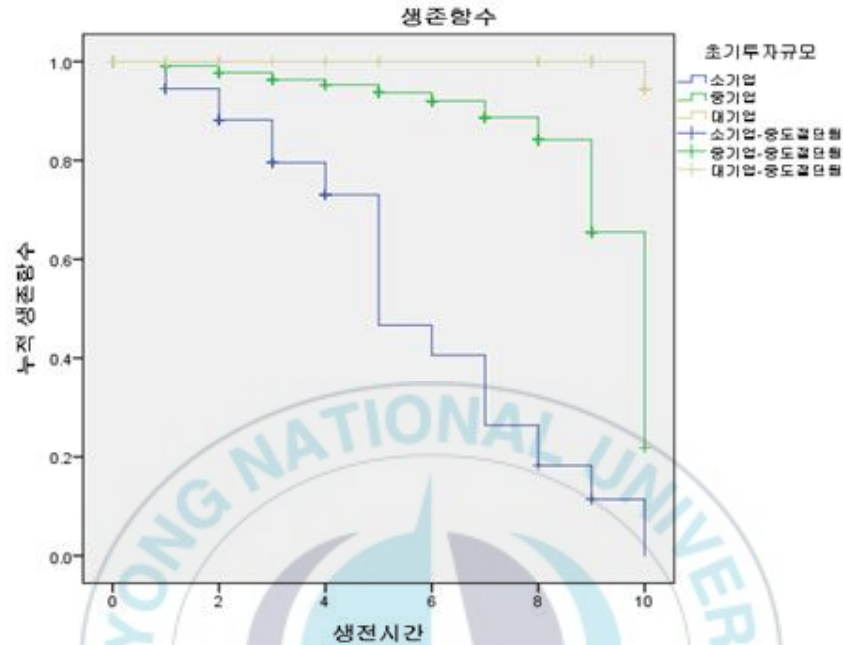
대기업의 평균값은 “10.000”로 대규모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평균 생존 시간이 “9.126”년이라는 의미한다. 이 결과는 <그림6-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6-7> 생존 시간에 대한 평균 및 중위수

초기 투자 규모	평균 ^a				중위수			
	추정 값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추정 값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소기업	5.786	.325	5.149	6.422	5.000	.416	4.185	5.815
중기업	9.126	.140	8.851	9.402	10.000	.411	9.194	10.806
대기업	10.000	0.000	10.000	10.000				
전체	8.703	.132	8.445	8.962				

a. 중도 절단된 경우 추정 값은 가장 큰 생존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림 6-3> 초기 투자규모별 한국 자회사의 생존함수



다. 가설 검정

가설1의 “초기 투자 규모에 따라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해석 결과를 보면 초기 투자 규모에 따라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과 평균 생존 기간이 차이가 있다. 즉 대규모로 진출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 비율이 제일 높고 중규모로 진입하는 자회사는 두 번째, 소규모로 투자한 자회사의 생존 확률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Log-rank (Mantel-Cox)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표6-8> 보듯이 초기 투자 규모에 따라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6-8〉 대응별 비교

초기투자규모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카이제곱	유의확률	카이제곱	유의확률	카이제곱	유의확률
Log Rank (Mantel-Cox)	소기업			106.290	.000	106.113	.000
	중기업	106.290	.000			25.964	.000
	대기업	106.113	.000	25.964	.000		

이 결과는 Dunne et al.,(1989), 이근우·강만수·박상규(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초기 투자 규모가 기업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초기 투자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임을 얻는데 더욱 유리해서 기업으로 현지 시장에서 정통성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의 초기 투자는 기업 경영 규모의 최적화를 실현하는 것에 유리하므로 기업 생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큰 규모로 진입하는 기업은 규모의 비경제로부터 발생하는 불리함을 적게 받을 것이다. 투자 규모가 크면 시장 경쟁력과 신용도 높아서 외부자금의 조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 생존에 도움이 된다.

2. 현재의 기업 규모

가. 집단별 생명표 해석

카플란-마이어 방법으로 한국 자회사의 각 현재 규모 별로 누적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표6-9>에서 보듯이 소기업의 경우 “1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생존 비율이 98%이며, “4년 이상 5년 미만”에서 생존 비율이 86%이며, “10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이 36%이다. 이 결과로 볼 때 현재의 소규모 한국 기업들의 누적 생존 비율은 연구 초기 (2005년)에 매우 높고 5년까지 그 생존 비율이 상당히 줄이며(81%), 10년까지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들이 폐업할 정도로 생존 비율이 너무 낮다 (36%).

<6-9> 소규모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현재규모	시간	상태	시간흐름에 따라 누적 생존 비율		누적 이벤트 수	남아 있는 케이스 수
			추정값	표준오차		
1	0.000	1.0			0	256
31	1.000	0.0	0.987	0.008	3	226
32	2.000	1.0			3	225
45	2.000	0.0			7	212
46	2.000	0.0	0.964	0.012	8	211
47	3.000	1.0			8	210
65	3.000	0.0			13	192
66	3.000	0.0			14	191
67	4.000	0.0	0.930	0.018	15	190
81	4.000	0.0			19	176
82	4.000	0.0			20	175
83	4.000	0.0	0.899	0.021	21	174
84	5.000	1.0			21	173
108	5.000	0.0			35	149
109	6.000	0.0	0.816	0.028	36	148
122	6.000	0.0			39	135
123	6.000	0.0			40	134
124	6.000	0.0	0.787	0.030	41	133
125	7.000	1.0			41	132
149	7.000	0.0			51	108
150	7.000	0.0	0.713	0.034	52	107
151	8.000	1.0			52	106
177	8.000	0.0			58	80
178	8.000	0.0	0.655	0.038	59	79
179	9.000	1.0			59	78
220	9.000	0.0			67	37
221	9.000	0.0	0.524	0.049	68	36
222	10.000	1.0			68	35
240	10.000	0.0			74	17
241		0.0	0.365	0.061	75	16

242	10.000	1.0			75	15
256	10.000	1.0			75	1
257	10.000	1.0			75	0

<표6-10>에서 보듯이 중기업의 경우 “1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생존 비율이 98%이며, “5 년 이상 6년 미만”에서 생존 비율이 92%이며, “8 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이 84%이다. 이 결과로 볼 때 현재의 중규모 한국 기업들의 누적 생존 비율은 연구 초기(2005년)부터 5년 후에도 매우 높지만 8년까지에 생존 가능할 기업율은 84%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표 6-10> 중규모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현재규모	시간	상태	시간흐름에 따라 누적 생존 비율		누적 이벤트 수	남아 있는 케이스 수
			추정값	표준오차		
1	0.000	1.0			0	83
2	0.000	1.0			0	82
11	0.000	1.0			0	73
12	1.000	0.0	0.986	0.014	1	72
13	1.000	1.0			1	71
20	1.000	1.0			1	64
21	2.000	0.0	0.971	0.020	2	63
22	2.000	1.0			2	62
23	3.000	0.0			3	61
24	3.000	0.0	0.940	0.029	4	60
25	3.000	1.0			4	59
26	3.000	1.0			4	58
39	5.000	1.0			4	45
40	6.000	0.0	0.919	0.035	5	44
41	6.000	1.0			5	43
42	6.000	1.0			5	42
43	6.000	1.0			5	41
44	7.000	0.0	0.896	0.041	6	40
45	7.000	1.0			6	39
51	7.000	1.0			6	33
52	8.000	0.0			7	32
53	8.000	0.0	0.842	0.054	8	31
54	8.000	1.0			8	30
83	10.000	1.0			8	1
84	10.000	1.0			8	0

<표6-11>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경우 “1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생존 비율이 96%이며, “5년 이상 6년 미만”에서 생존 비율이 92%이며, “8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이 86%이다. 이 결과로 볼 때 현재의 중규모 한국 기업들의 누적 생존 비율은 연구 초기(2005년)부터 5년 후에도 매우 높지만 9년까지에 생존 가능할 기업율은 86%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표6-11> 대규모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현재규모	시간	상태	시간흐름에 따라 누적 생존 비율		누적 이벤트 수	남아 있는 케이스 수
			추정값	표준오차		
1	0.000	1.0			0	93
2	0.000	1.0			0	92
7	1.000	0.0			1	87
8	1.000	0.0			2	86
9	1.000	0.0	0.966	0.019	3	85
10	1.000	1.0			3	84
11	1.000	1.0			3	83
19	2.000	0.0			4	75
20	2.000	0.0	0.940	0.026	5	74
21	2.000	1.0			5	73
33	4.000	1.0			5	61
34	5.000	0.0	0.925	0.030	6	60
35	5.000	1.0			6	59
36	5.000	1.0			6	58
37	6.000	1.0			6	57
38	7.000	1.0			6	56
39	7.000	1.0			6	55
40	7.000	1.0			6	54
41	7.000	1.0			6	53
60	8.000	1.0			6	34
61	8.000	1.0			6	33
62	8.000	1.0			6	32
64	9.000	0.0			7	30
65	9.000	0.0	0.865	0.049	8	29
66	9.000	1.0			8	28
93	10.000	1.0			8	1
94	10.000	1.0			8	0

나. 중앙값 해석

<표6-12> 볼 때, 소기업의 평균값은 “8.266”로 현재의 소규모 한국 기업의 평균 생존 시간이 “8.266”년이라는 의미한다. 중앙값은 “10.000”으로 소기업 전체의 절반가량이 10 년에 폐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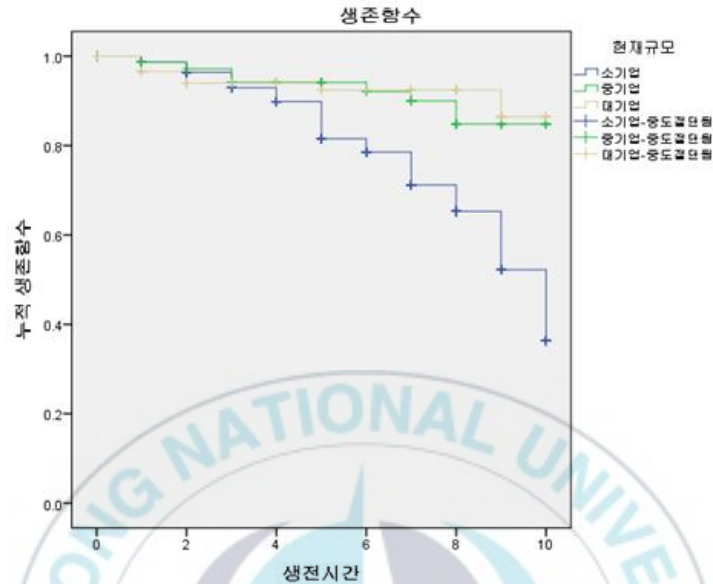
또한 중기업의 평균값은 “9.301”로 중규모 한국 기업의 평균 생존 시간이 “9.301”년이라는 의미한다. 대기업의 평균값은 “9.346”로 대규모 기업의 평균 생존 시간이 “9.346”년이라는 의미한다. 이 결과는 <그림 6-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6-12> 생존 시간에 대한 평균 및 중위수

현재규모	평균a				중위수			
	추정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추정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소기업	8.266	0.181	7.91	8.620	10.000	0.420	9.17	10.823
중기업	9.301	0.244	8.82	9.779				
대기업	9.346	0.237	8.88	9.810				
전체	8.703	0.132	8.44	8.962				

a. 중도 절단된 경우 추정 값은 가장 큰 생존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림 5-4> 현재 규모별 한국 자회사의 생존함수



다. 가설 검정

가설 2의 “현재 규모에 따라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를 검증하였다.

해석 결과를 현재의 대규모 한국 자회사의 생존 비율이 제일 높고 중규모 자회사는 두 번째, 소규모 자회사의 생존 확률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Log-rank(Mantel-Cox)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표5-13> 보듯이 소규모 기업과 중규모 기업, 소규모 기업과 대규모기업 간의 생존율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되었으나 중규모 기업과 대규모 기업 간의 생존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가설 2은 기각되었다.

<표 6-13> 대응별 비교

현재 규모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카이제곱	유의확률	카이제곱	유의확률	카이제곱	유의확률
Log Rank (Mantel-Cox)	소기업			13.594	0.000	17.928	0.000
	중기업	13.594	0.000			0.142	0.706
	대기업	17.928	0.000	0.142	0.706		

이 결과는 Mata, Portugal & Guimares(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다. 종업원 수로 측정하는 자회사의 현재 규모가 자회사의 생존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규모가 큰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한계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과 생산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도움이 된다. 반면에 현재 규모가 작은 기업은 기술, 설비, 인력의 제한이 있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경기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고 대기업보다 더욱 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3. CEO의 특성

가. CEO의 국적

(1) 집단별 생명표 해석

카플란-마이어 방법으로 CEO 국적에 따라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표6-14>에서 보듯이 베트남인의 경우 “1년부터 3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생존 비율이 92%이며, “4년 이상 7년 미만”에서 생존 비율이 88%이며, “8년”에서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이 56%이다. 이

결과로 볼 때 베트남인 CEO를 임명한 한국 기업들의 누적 생존 비율은 연구 초기에 매우 높고 8년까지 절반의 기업들이 폐업할 정도로 생존 비율이 낮다(58%).

<표6-14> 베트남인 CEO를 가진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CEO 국적	시간	상태	시간흐름에 따라 누적 생존 비율		누적 이벤트 수	남아 있는 케이스 수
			추정 값	표준오차		
1	0.000	1.0			0	16
2	1.000	1.0			0	15
3	1.000	1.0			0	14
4	2.000	1.0			0	13
5	3.000	0.0	0.923	0.074	1	12
6	4.000	1.0			1	11
7	4.000	1.0			1	10
8	4.000	1.0			1	9
9	5.000	1.0			1	8
10	7.000	0.0	0.808	0.126	2	7
11	7.000	1.0			2	6
12	8.000	0.0			3	5
13	8.000	0.0	0.538	0.177	4	4
14	8.000	1.0			4	3
15	9.000	1.0			4	2
16	9.000	1.0			4	1
17	10.000	1.0			4	0

<표 6-15>에서 보듯이 한국인의 경우 “0년부터 1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생존 비율이 98%이며, “5년 이상 6년 미만”에서 생존 비율이 83%이며, “10년”에서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이 55%이다. 이 결과로 볼 때

한국인 CEO를 선임한 한국 기업들의 누적 생존 비율은 연구 초기에 매우 높고 10년까지 절반의 기업들이 폐업할 정도로 생존 비율이 낮다(55%).

<표 6-15> 한국인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CEO 국적	시간	상태	시간흐름에 따라 누적 생존 비율		누적 이벤트 수	남아 있는 케이스 수
			추정 값	표준오차		
1	0.000	1.0			0	417
2	0.000	1.0			0	416
3	0.000	1.0			0	415
50	1.000	0.0			6	368
51	1.000	0.0	0.981	0.007	7	367
52	1.000	1.0			7	366
53	1.000	1.0			7	365
76	1.000	1.0			7	342
77	2.000	0.0			8	341
78	2.000	0.0			9	340
79	2.000	0.0			10	339
80	2.000	0.0			11	338
81	2.000	0.0			12	337
82	2.000	0.0			13	336
83	2.000	0.0			14	335
84	2.000	0.0	0.958	0.011	15	334
85	2.000	1.0			15	333
111	3.000	0.0			22	307
112	3.000	0.0	0.934	0.013	23	306
113	3.000	1.0			23	305
114	3.000	1.0			23	304
115	3.000	1.0			23	303
133	4.000	0.0			27	285
134	4.000	0.0			28	284
135	4.000	0.0	0.915	0.015	29	283
136	4.000	1.0			29	282
154	5.000	0.0			32	264
155	5.000	0.0			33	263
156	5.000	0.0			34	262
157	5.000	0.0			35	261
166	5.000	0.0			44	252
167	5.000	0.0	0.860	0.020	45	251
189	6.000	0.0			49	229

190	6.000	0.0			50	228
191	6.000	0.0	0.838	0.021	51	227
192	6.000	1.0			51	226
216	7.000	0.0			57	202
220	7.000	0.0			61	198
221	7.000	0.0	0.793	0.024	62	197
260	8.000	0.0			65	158
261	8.000	0.0			66	157
262	8.000	0.0			67	156
263	8.000	0.0			68	155
264	8.000	0.0	0.759	0.026	69	154
265	8.000	1.0			69	153
334	9.000	0.0			79	84
335	9.000	0.0	0.670	0.034	80	83
382	10.000	0.0			85	36
383	10.000	0.0			86	35
384	10.000	0.0	0.556	0.048	87	34
385	10.000	1.0			87	33
386	10.000	1.0			87	32
418	10.000	1.0			87	0

(2) 중앙값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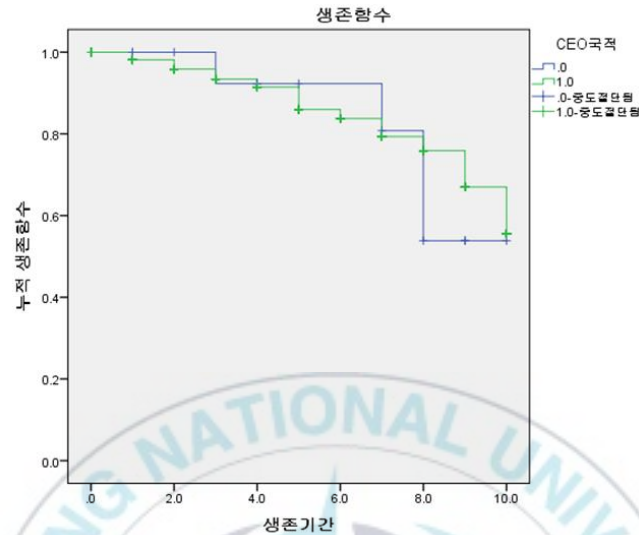
<표 6-16> 볼 때, 베트남인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평균값은 8.57”로 한국 자회사의 평균 생존 시간이 “8.577”년이라는 의미한다. 한국인 CEO를 임명한 한국 자회사의 평균값은 “8.707”로 평균 생존 시간이 “8.7”년이라는 의미한다. 이 결과는 <그림 6-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6-16> 생존 시간에 대한 평균

CEO 국적	평균a			
	추정 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베트남인	8.577	0.600	7.402	9.752
한국인	8.707	0.135	8.443	8.972
전체	8.703	0.132	8.445	8.962

a. 중도 절단된 경우 추정 값은 가장 큰 생존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림 6-5> CEO의 국적에 따라 한국 자회사의 생존 함수



(3) 가설 설정

가설 3-1의 “한국 CEO를 가진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베트남 CEO를 가진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였다.

<표 6-17> 보듯이 두 집단 간의 생존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표 6-17> 대응별 비교

CEO 국적		베트남인		한국인	
		카이제곱	유의확률	카이제곱	유의확률
Log Rank (Mantel-Cox)	베트남인			0.221	0.638
	한국인	0.221	0.638		

이 결과를 보면 최고 경영층 이론에 기반으로 하여 최고 경영자의 특성이 기업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고 경영층 이론에 따르면 기업 초기의 최고 경영자의 특성은 기업 내부

에 각인되어 기업의 정책과 절차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결과, 최고 경영자의 국적과 성별이 자회사의 생존율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CEO의 성별

(1) 생명표 해석

카플란-마이어 방법으로 CEO 성별에 따라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표6-18>에서 보듯이 여성의 경우 “0년부터 1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생존 비율이 98%이며, “4년 이상 5년 미만”에서 생존 비율이 88%이며, “10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이 19%이다. 이 결과로 볼 때 여성 CEO를 임명한 한국 기업들의 누적 생존 비율은 연구 초기에 98%로 매우 높고 10년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폐업할 정도로 생존 비율이 매우 낮다(19%).

<표 6-18> 여성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CEO 성별	시간	상태	시간흐름에 따라 누적 생존 비율		누적 이벤트 수	남아 있는 케이스 수
			추정 값	표준오차		
1	0.000 0.000	1.0			0	76
2	1.000	1.0			0	75
19	1.000	1.0			0	58
20	2.000	1.0			0	57
21	2.000	0.0	0.982	0.017	1	56
25	3.000	1.0			1	52
26	3.000	0.0			2	51
27	3.000	0.0	0.945	0.031	3	50
30	3.000	1.0			3	47

31	4.000	0.0			4	46
32	4.000	0.0	0.904	0.041	5	45
35	4.000	1.0			5	42
36	5.000	0.0	0.883	0.045	6	41
40	5.000	1.0			6	37
41	5.000	1.0			6	36
42	6.000	0.0	0.858	0.050	7	35
43	6.000	1.0			7	34
44	6.000	1.0			7	33
47	7.000	0.0			10	30
48	7.000	0.0	0.754	0.066	11	29
49	7.000	1.0			11	28
50	7.000	1.0			11	27
54	7.000	1.0			11	23
55	8.000	0.0			12	22
56	8.000	0.0			13	21
57	8.000	0.0	0.656	0.078	14	20
65	8.000	1.0			14	12
66	8.000	1.0			14	11
67	9.000	0.0	0.596	0.091	15	10
71	9.000	1.0			15	6
74	9.000	1.0			15	3
75	10.000	0.0			16	2
76	10.000	0.0	0.199	0.165	17	1
77	10.000	1.0			17	0

<표 6-19>에서 보듯이 남성의 경우 “0년부터 1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생존 비율이 97%이며, “4년 이상 5년 미만”에서 생존 비율이 85%이며, “10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이 59%이다. 이 결과로 볼 때 남성 CEO를 임명한 한국 기업들의 누적 생존 비율은 연구 초기에 97%

로 매우 높고 10년까지 절반의 기업들이 폐업할 정도로 생존 비율이 많이 줄었다(59%).

<표 6-19> 남성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CEO 성별	시간	상태	시간흐름에 따라 누적 생존 비율		누적 이벤트 수	남아 있는 케이스 수
			추정 값	표준오차		
1	0.000	1.0			0	357
30	0.000	1.0			0	328
31	1.000	0.0			1	327
32	1.000	0.0			2	326
33	1.000	0.0			3	325
34	1.000	0.0			4	324
35	1.000	0.0			5	323
36	1.000	0.0			6	322
37	1.000	0.0	0.979	0.008	7	321
38	1.000	1.0			7	320
61	2.000	0.0			9	297
62	2.000	0.0			10	296
63	2.000	0.0			11	295
64	2.000	0.0			12	294
65	2.000	0.0			13	293
66	2.000	0.0	0.956	0.012	14	292
67	2.000	1.0			14	291
88	3.000	0.0			19	270
89	3.000	0.0			20	269
90	3.000	0.0	0.931	0.014	21	268
91	3.000	1.0			21	267
92	3.000	1.0			21	266
106	4.000	0.0			23	252
107	4.000	0.0			24	251
108	4.000	0.0	0.917	0.016	25	250
109	4.000	1.0			25	249
136	5.000	0.0			37	222
137	5.000	0.0			38	221
138	5.000	0.0			39	220
139	5.000	0.0	0.858	0.021	40	219
140	5.000	1.0			40	218
157	6.000	0.0			44	201
158	6.000	0.0	0.837	0.022	45	200
159	6.000	1.0			45	199

182	7.000	0.0			52	176
183	7.000	0.0	0.800	0.025	53	175
184	7.000	1.0			53	174
219	8.000	0.0			58	139
220	8.000	0.0	0.767	0.027	59	138
221	8.000	1.0			59	137
280	9.000	0.0			67	78
281	9.000	0.0			68	77
282	9.000	0.0	0.678	0.036	69	76
283	9.000	1.0			69	75
322	10.000	0.0			72	36
323	10.000	0.0			73	35
324	10.000	0.0	0.591	0.048	74	34
325	10.000	1.0			74	33
326	10.000	1.0			74	32
357	10.000	1.0			74	1
358	10.000	1.0			7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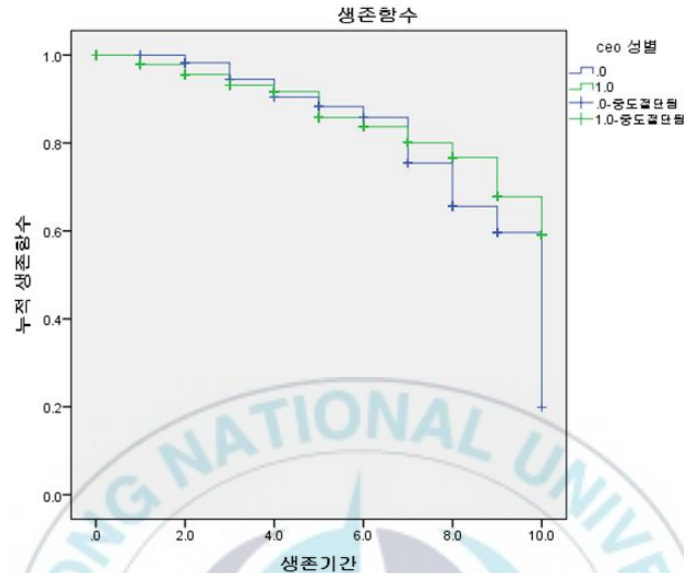
(2) 중앙값 해석

<표 6-20> 볼 때, 여성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평균값은 “8.58”로 한국 자회사의 평균 생존 시간이 “8.58”년이라는 의미한다. 남성 CEO를 임명한 한국 자회사의 평균값은 “8.72”로 평균 생존 시간이 “8.72”년이라는 의미한다. 이 결과는 <그림 6-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20> 생존 시간에 대한 평균

CEO 성별	평균 ^a			
	추정 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여성	8.580	0.331	7.931	9.228
남성	8.723	0.144	8.440	9.006
전체	8.703	0.132	8.445	8.962

<그림 6-6> CEO의 성별에 따라 한국 자회사의 생존 함수



(3) 가설 검정

가설 3-2의 “남성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여성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였다. <표 6-21> 보듯이 두 집단 간의 생존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3-2은 기각되었다.

<표6-21> 대응별 비교

ceo 성별		여성		남성	
		카이제곱	유의확률	카이제곱	유의확률
Log Rank (Mantel-Cox)	여성			1.590	.207
	남성	1.590	0.207		

이 결과를 보면 최고 경영층 이론에 기반으로 하여 최고 경영자의 특성이 기업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고 경영층 이론에 따르면 기업 초기의 최고 경영자의 특성은 기업

내부에 각인되어 기업의 정책과 절차로 나타나며, 기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결과, 최고 경영자의 국적과 성별이 자회사의 생존율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투자 유형

가. 생명표 해석

카플란-마이어 방법으로 투자 유형에 따라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표 6-22>에서 보듯이 합작 투자의 경우 “0년부터 3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생존 비율이 90%이며, “4년 이상 5년 미만”에서 생존 비율이 79%이며, “8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이 34%이다. 이 결과로 볼 때 합작 투자로 베트남 빈증성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누적 생존 비율은 연구 초기에 90%로 매우 높고 8년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폐업할 정도로 생존 비율(34%)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2> 합작 투자로 진입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투자형태	기간	생존비율	추정 값	표준오차	T	케이스 수
1	0.000	1.0			0	22
	1.000					
2	2.000	1.0			0	21
3	3.000	1.0			0	20
4	3.000	0.0			1	19
5	3.000	0.0	0.900	0.067	2	18
6	4.000	1.0			2	17
	5.000					
7	5.000	0.0			3	16
	5.000					
8		0.0	0.794	0.092	4	15

9	5.000	1.0			4	14
10	7.000	0.0			5	13
11	7.000	0.0			6	12
12	7.000	0.0	0.624	0.113	7	11
13	7.000	1.0			7	10
14	7.000	1.0			7	9
15	8.000	0.0			8	8
16	8.000	0.0			9	7
17	8.000	0.0			10	6
18	8.000	0.0	0.347	0.121	11	5
19	8.000	1.0			11	4
20	8.000	1.0			11	3
21	8.000	1.0			11	2
22	9.000	1.0			11	1
23	10.000	1.0			11	0

<표 6-23>에서 보듯이 단독 투자의 경우 “0년부터 1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생존 비율이 98%이며, “4년 이상 5년 미만”에서 생존 비율이 86%이며, “8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누적 생존율이 78%이다. 이 결과로 볼 때 단독 투자로 베트남 빈증성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누적 생존 비율은 연구 초기에 98%로 매우 높고 8년까지 절반의 기업들이 폐업할 정도로 생존 비율(57%)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3> 단독 투자로 진입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투자형태	시간	상태	시간흐름에 따라 누적 생존 비율		누적 이벤트 수	남아 있는 케이스 수
			추정 값	표준오차		
1	0.000	1.0			0	411
13	1.000	1.0			0	399
49	1.000	0.0			5	363
50	1.000	0.0			6	362
51		0.0	0.981	0.007	7	361

	1.000					
52	3.000	1.0			7	360
111	3.000	0.0			21	301
112	3.000	0.0	0.936	0.013	22	300
113	4.000	1.0			22	299
134	4.000	0.0			27	278
135	4.000	0.0	0.916	0.015	28	277
136	5.000	1.0			28	276
166	5.000	0.0			41	246
167	5.000	0.0	0.866	0.019	42	245
168	6.000	1.0			42	244
190	6.000	0.0			47	222
191	6.000	0.0	0.843	0.021	48	221
192	6.000	1.0			48	220
202	7.000	1.0			48	210
217	7.000	0.0			55	195
218	7.000	0.0			56	194
219	7.000	0.0	0.806	0.023	57	193
220	7.000	1.0			57	192
221	8.000	1.0			57	191
256	8.000	0.0			59	156
257	8.000	0.0			60	155
258	8.000	0.0			61	154
259	8.000	0.0	0.780	0.025	62	153
260	10.000	1.0			62	152
376	10.000	0.0			78	36
377	10.000	0.0			79	35
378	10.000	0.0	0.572	0.049	80	34
408	10.000	1.0			80	4
409	10.000	1.0			80	3
410	10.000	1.0			80	2
411	10.000	1.0			80	1
412		1.0			80	0

나. 중앙값 해석

<표 6-24> 볼때,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입한 자회사의 평균값은 “7.50”로 한국 자회사의 평균 생존 시간이 “7.70”년이라는 의미한다. 중앙값은

“8.000”으로 합작 투자로 진입한 한국 기업 전체의 절반가량이 8.000년에 폐업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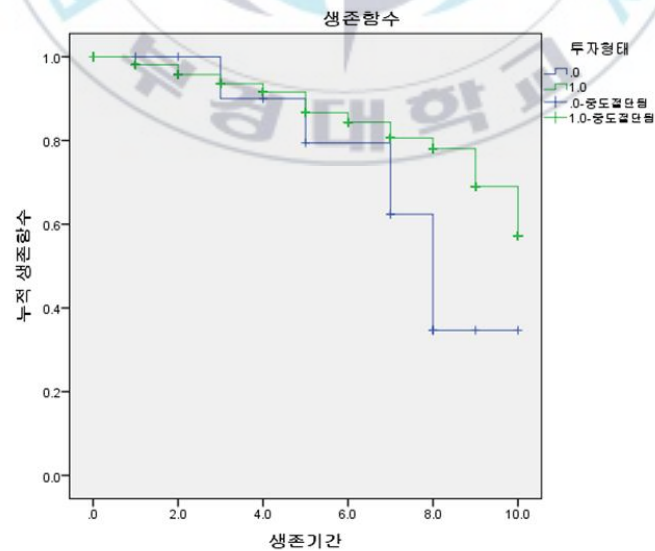
단독 투자의 형태로 진입한 자회사의 평균값은 “8.77”로 한국 자회사의 평균 생존 시간이 “8.77”년이라는 의미한다. 이 결과는 <그림 6-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24> 생존 시간에 대한 평균

투자 유형	평균 ^a			
	추정 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합작투자	7.705	0.516	6.695	8.716
단독투자	8.776	0.135	8.512	9.041
전체	8.703	0.132	8.445	8.962

a. 중도 절단된 경우 추정 값은 가장 큰 생존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림 6-7>투자 형태별 한국 자회사의 생존함수



다. 가설 검정

가설 4의 “단독 투자의 형태로 진출한 한국 자회사와 합작 투자로 진출한 한국 자회사 두 집단 간의 생존율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를 검증하였다.

<표 6-25> 보듯이 두 집단 간의 생존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가설 4은 채택되었다.

<표 6-25>대응별 비교

투자유형		합작투자		단독투자	
		카이제곱	유의확률	카이제곱	유의확률
Log Rank (Mantel-Cox)	합작투자			9.040	0.003
	단독투자	9.040	0.003		

이 결과는 Hennart(1991), Yamawaki(1997), Dinh Thi Thanh Binh(2014)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해외 시장 진입 시 위험 수준 및 비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위험 수준의 측면에 보면 단독 투자인 경우, 현지법인 설립부터 시장 철수까지 경영 통제를 할 수 있다. 합작 투자인 경우 합작 파트너와의 기업 문화 차이나 이익의 갈등을 피할 수 있다. 비용 측면에 보면 단독 투자 기업들은 특성 해외시장에서 성공적이었던 관행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최소한의 자원에 관련 비용에 부딪히게 된다. 반면에 합작 투자 기업들은 파트너를 선택 잘 하기 위하여 부가적 자원과 비용을 활용해야 한다.

위험 수준과 비용 측면에서 단독투자 기업들은 합작투자 기업보다 우월한 경영 성과를 내고 해외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5. 입지 유형

가. 생명표 해석

카플란-마이어 방법으로 입지 유형에 따라 한국 자회사의 누적생존율을 계산하였다. <표 6-26>에서 보듯이 일반지역의 경우 “0년부터 1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생존비율이 98%이며, “4년 이상 5년 미만”에서 생존비율이 85%이며, “10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누적생존율이 51%이다. 이 결과로 일반지역 입지를 선택한 한국 기업들의 누적 생존비율은 연구 초기에 98%로 매우 높고 10년까지 절반의 기업들이 폐업할 정도로 생존비율(51%)이 매우 낮다.

<표 6-26> 일반지역에 위치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명표

1			추정 값	표준오차	기간	개수
	0.000	1.0			0	241
14	1.000	0.0			2	228
15	1.000	0.0	0.987	0.007	3	227
16	2.000	1.0			3	226
26	2.000	0.0			8	216
27	3.000	0.0	0.960	0.013	9	215
40	3.000	0.0			11	202
41	3.000	0.0			12	201
42	3.000	0.0	0.941	0.016	13	200
43	4.000	1.0			13	199
50	4.000	0.0			16	192
51	4.000	0.0	0.922	0.018	17	191
52	5.000	1.0			17	190
72	5.000	0.0			27	170
75	5.000	0.0			30	167
76	5.000	0.0	0.850	0.025	31	166
77		1.0			31	165

	6.000					
93	6.000	0.0			34	149
94	6.000	0.0			35	148
95	6.000	0.0	0.822	0.027	36	147
96	7.000	1.0			36	146
116	7.000	0.0			44	126
117	7.000	0.0			45	125
118	7.000	0.0	0.761	0.031	46	124
119	8.000	1.0			46	123
148	8.000	0.0			52	94
149	9.000	0.0	0.708	0.035	53	93
187	9.000	0.0			60	55
188	9.000	0.0			61	54
189	9.000	0.0			62	53
190	9.000	0.0	0.594	0.044	63	52
191	10.000	1.0			63	51
221	10.000	0.0			65	21
222	10.000	0.0	0.516	0.057	66	20
241	10.000	1.0			66	1
242	10.000	0.0			66	0

<표 6-27>에서 보듯이 공단의 경우 “0년부터 1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생존비율이 97%이며, “4년 이상 5년 미만”에서 생존비율이 88%이며, “10년 미만”에서 한국 자회사의 누적생존율이 63%이다. 이 결과로 볼 때 일반지역 입지를 선택한 한국 기업들의 누적 생존비율은 연구 초기에 97%로 매우 높고 10년까지 생존비율이 63% 상당히 줄었다.

<표 6-27> 공단에 위치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

입지선택	시간	상태	시간흐름에 따라 누적 생존 비율		누적 이벤트 수	남아 있는 케이스 수
			추정 값	표준오차		
1	0.000	1.0			0	192
35	1.000	0.0			2	158
36	1.000	0.0			3	157
37	1.000	0.0	0.975	0.012	4	156
38	1.000	1.0			4	155
59	2.000	0.0			5	134

60	2.000	0.0	0.961	0.016	6	133
73	3.000	0.0			9	120
74	3.000	0.0			10	119
75	3.000	0.0	0.922	0.023	11	118
87	3.000	1.0			11	106
88	4.000	0.0			12	105
89	4.000	0.0	0.904	0.026	13	104
97	4.000	1.0			13	96
98	5.000	0.0			14	95
99	5.000	0.0	0.885	0.028	15	94
100	5.000	1.0			15	93
104	5.000	1.0			15	89
105	6.000	0.0	0.875	0.030	16	88
106	6.000	1.0			16	87
113	7.000	0.0	0.854	0.033	18	80
114	7.000	1.0			18	79
115	7.000	1.0			18	78
127	8.000	0.0			19	66
128	8.000	0.0	0.828	0.036	20	65
129	8.000	1.0			20	64
144	8.000	1.0			20	49
157	8.000	1.0			20	36
158	8.000	1.0			20	35
159	9.000	0.0	0.805	0.042	21	34
160	9.000	1.0			21	33
176	10.000	0.0			23	17
177	10.000	0.0			24	16
178	10.000	0.0	0.635	0.082	25	15
179	10.000	1.0			25	14
193	10.000	1.0			25	0

나. 중앙값 해석

<표 6-28> 볼 때, 일반 지역에 입지한 자회사의 평균값은 “8.54”로 한국 자회사의 평균 생존 시간이 “8.54”년이라는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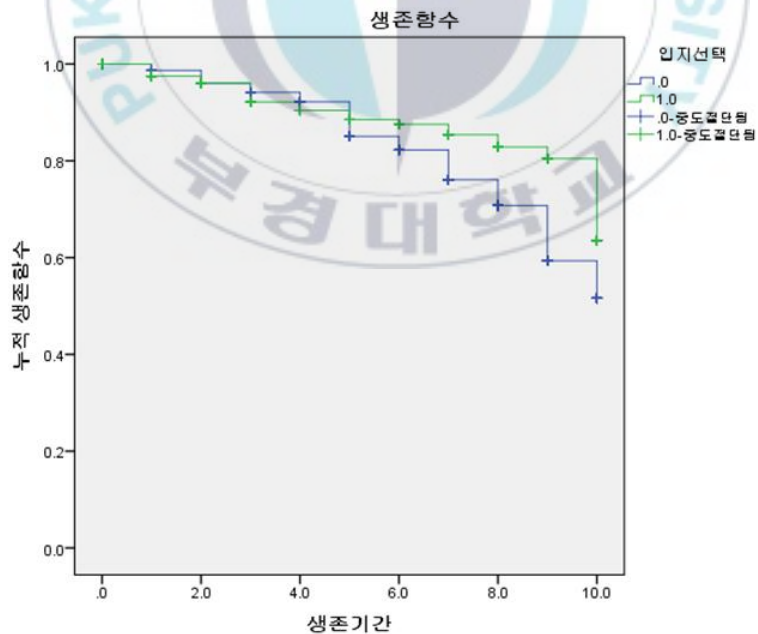
공단에 입지한 자회사의 평균값은 “9.00”로 한국 자회사의 평균 생존 시간이 “9.00”년이라는 의미한다. 이 결과는 <그림 6-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28> 생존 시간에 대한 평균

입지유형	평균 ^a			
	추정 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일반지역	8.545	0.167	8.218	8.872
공단	9.009	0.210	8.597	9.421
전체	8.703	0.132	8.445	8.962

a. 중도 절단된 경우 추정값은 가장 큰 생존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림 6-8> 입지 형태별 한국 자회사의 생존 함수



다. 가설 검정

가설 5의 “일반지역에 입지한 자회사와 공단에 입지한 한국 자회사 두 집단 간의 생존율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를 검증하였다.

<표 6-29> 보듯이 두 집단 간의 생존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가설 5은 채택되었다.

<표 6-29> 대응별 비교

입지유형		일반지역		공단	
		카이제곱	유의확률	카이제곱	유의확률
Log Rank (Mantel-Cox)	일반지역			4.453	0.035
	공단	4.453	0.035		

이 결과는 Dinh Thi Thanh Binh(2014), 한병섭(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산업 단지는 일반 지역에 비하여 인프라가 잘 장비된다. 또한 산업 단지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행정 수속 대행 해주어서 공단에 입지하면 경영 과정에 편리한 점이 많다. 반면에 일반 지역에 입지하면 복잡한 토지 소유 관계가 얽혀서 이를 해결하는 기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활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가설 검정 결과 요약

가설검증 결과를 <표 6-30>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6-30> 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검정 결과
가설1: 초기투자규모가 큰 한국 자회사일수록 자회사의 생존율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2: 현재규모(종업원 수)가 큰 한국 자회사일수록 자회사의 생존율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3-1: 한국인 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베트남인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3-2: 남성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여성CEO를 가지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4: 단독 투자로 진출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합작투자 로 진출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5: 공단에 입지한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일반지역에 입지 한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	채택

VII. 결론

제 1절 연구 결과

기업의 생존 기간이 얼마이며 어떤 요인으로 인해 기업의 생존이 결정되는지 매우 중요한 실증적인 문제이다. 자회사의 생존가능성 얼마인지 그리고 자회사 생존이 어떤 요인에 의존하느냐 하는 문제는 투자 기업의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빈증성 투자 계획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빈증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자회사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으며, 자회사에 속한 특성과 투자 전략에 따라 생존율 차이를 검정하였다. 사용된 생존 분석 방법은 카플란-마이어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베트남 빈증성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자회사의 초기 진입했을 때 누적 생존 비율은 98%이며 5년 누적 생존율이 86%이고 10년 누적 생존율이 45%이다. 즉 빈증성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처음 시작점에 생존 가능한 기업율은 98%인데 10년까지 생존한 기업율이 45%이다. Dinh Thi Thanh Binh(2014)는 베트남 진출 187개의 해외 자회사 생존율 추정 결과, 초기 투자 시점에 생존 비율이 90%이며 13년까지 해외 자회사 35%만 생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보면 빈증성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생존율은 전국적으로 투자하는 해외 자회사의 평균 생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둘째, 해외 자회사에 속한 특성에 따라 집단 간의 생존율 비교하여 가설 검정 결과가 다음과 같다

“초기 투자 규모가 큰 한국 자회사일수록 자회사의 생존율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1이 채택되었다. 초기 투자 규모별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 계산 결과에서는 소규모로 투자인 경우 초기에 생존율은 94%인데 10년까지 생존 가능성이 0%이다. 중규모로 진입한 기업인 경우 초기의 생존율은 99%인데 10년까지 대부분 폐업할 정도로 생존율 21%로 너무 낮다. 반대로 대규모로 투자인 경우 10년까지 생존 가능성이 100%이다. 이 결과를 보면 투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베트남 빈증성에 40만 불 이하의 투자 자본으로 진출할 경우 10년까지 생존 가능성이 0%이지만 200만 불 이상 투자하면 10년까지도 계속 생존할 수 있다.

“현재 규모(종업원 수)가 큰 한국 자회사일수록 자회사의 생존율이 높아질 것이다”가설 2이 채택되었다. 현재규모별 생존율 분석 결과를 보면 소·중·대기업의 8년까지 생존 비율은 각각 52%, 82%, 86%이다. 이 결과를 보면 생존율이 300명이상의 종업원 수가 있는 한국 대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100명 이하의 종업원 수를 가진 한국 소기업보다 매우 높다.

가설 1 및 가설 2의 검증 결과를 통하여 Aldrich & Auster(1986)의 소규모 조직의 불리에 대한 논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독 투자로 진출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합작투자로 진출하는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4는 채택되었다. 2005년 초기에는 단독 투자와 합작 투자 기업 간의 생존율 모두 100%인데 비해 10년 후에 단독 투자 기업의 생존 가능성은 57%인데 합작 투자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34%뿐이다. 이 결과를 보면 단독 투자로 베트남 빈증성에 투자하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작 투자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기술 및 경영자원 상호 보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해야 하다.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들이

재정적, 기술적 자원, 경영관리 등의 경쟁 역량이 부족해서 효과적으로 합작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산업 단지에 입지한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이 일반 지역에 입지한 한국 자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5는 채택되었다. 2005년 초기에 일반 지역 입지 기업의 생존율은 98%이며, 산업 단지 입지 기업의 생존율이 97%이었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일반지역에 입지한 자회사의 생존 비율은 51%,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회사의 생존비율은 69%로 나타났다. 즉 산업 단지에 위치한 하한 자회사의 생존 가능성이 일반 지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된다.

베트남과 같은 시장의 특징은 발전 가능성이 유망이나 인프라 시설 부족, 관료주의, 법체계 미비, 기업 및 산업별 경쟁력 기반 취약 등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시 다양한 애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 단지는 일반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고 공단관리 위원회가 행정 수속을 대행해 주고 제반 관리 업무를 해 주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기업들이 경영 과정에 편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생존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고 경영자의 국적과 성별에 대한 가설3-1 및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즉 베트남인 CEO나 한국인 CEO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자회사의 생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CEO 성별도 자회사 생존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표본을 빈증성으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호치민, 하노이, 다낭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한국 기업이 더 많고 활동 분야도 더 다양하지만 빈증성 지역으로만 선택하여 표본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요인 선정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의 분석 범위가 주로 기업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기업특성 이외에도 산업 특성, 거시 환경 특성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이 있으나, 자료 수집의 한계로 기업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셋째, 모기업과 관련된 것이다. 모기업의 규모, 투자경험 등의 요인들이 자회사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기존의 실증 분석에서 검증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회사의 특성에 대한 변수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기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모기업 특성과 관련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생존 분석 방법과 분석 요인을 다양화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카플란-마이어 방식은 생존율의 집단 간 차이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영향한 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방법 Cox 비례 위험모형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강미(2009),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중소건설기업의 생존요인분석, **부동산연구**, 15(2), 41-57.
- 권오혁(1995), R & D 입지 연구의 동향과 비판, **지방행정연구**, 10(1), 1149-1175.
- 권오혁(1999), 실리콘밸리의 성장요인과 산업경쟁력, **지방행정연구**, 13(1), 169-199.
- 김경숙.장영민.도영호(2014), 신생 중소기업의 헤저드 모형을 이용한 산업별 생존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43(1), 121-144.
- 김권중.김문철(2008), 재무제표분석과 가치평가, **창민사**, 서울, 52-116
- 김양민.김승주(2013), 최초의 자산: 창업자의 특성이 신생기업에 미치는 영향, **전략경영연구**, 16(2), 1-22.
- 김인수(1991), **거시조직이론**, 무역경영사.
- 김태훈(2009), 중소건설업체의 생존분석에 관한 실증 연구, **국토연구**, 61, 255-273
- 김학범(2010), **관리회계**, 신영사.
- 김현규(2015),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의 생존율과 생존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 학회 논문지**, 20(6), 67-78.
- 나상균. 이준수(2007), 신생기업의 생존요인분석: 기술혁신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0(3), 1325-1340.
- 류준영.남진.이창효(2014), 서울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도시행정학보**, 27(4), 247-271.

- 박종화. 이기철(2006), 산업클러스터 발전의 결정요인: 두 도시의 사례, **사회과학연구**, 22(1), 37-62.
- 박진경·오광호·김민수(2012), 콕스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업종별 생존율 및 생존요인 분석, **국제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2), 257-269.
- 송경일·최종수(2008), **SPSS 15를 이용한 생존자료의 분석**, 한나래.
- 송동섭. 심재우(2010), 생존분석을 이용한 기업부실예측, **상업교육연구**, 24(4) 195-212.
- 송성환·권성훈·유경진·배영임(2010), 벤처기업의 효율성과 재무요인이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영과학**, 27(1), 107-116.
- 송치승·노용환(2010), 생존분석을 이용한 기업부실예측, **상업교육연구**, 24(4), 195-212.
- 송경일(1999), **생존분석**, SPSS아카데미.
- 이근우·강만수·박상규(2007),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분석에 관한 연구: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 37(1), 57-75.
- 이병기(2005), 해저드모형에 의한 신생기업의 생존요인 분석, **국제경영연구**, 11(1), 131-154.
- 이상호(1998), 중소 전자 기업의 생존요인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4(2), 93-112.
- 이영찬(2010), 생존분석을 이용한 기술보증기업의 부실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기술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연구**, 39(3), 1-24
- 임채윤·이윤준·이광호·김종선·배영임·김성진(2008), 벤처기업 생존영향 요인분석, **정책연구**, 1-168.

- 정수연(2000), Cox의 비례적 위험모형을 이용한 한국기업의 상장기간
지속요인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영빈(1991), 조직과 환경의 관계, 조직의 변화 - 다섯가지 이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5~117.
- 차명수.임성준(2017), 기업 초기 최고경영진 및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ICT
벤처기업의 장기생존에 미치는 영향, **인사조직연구**, 25(30호,
195-234.
- 최세경.현선훈(2011), 제도적 동형화와 조직정당성: 자원의존이론과
제도론의 결합, **대한경영학회지**, 24(2), 1029-1050.
- 한병섭(2015),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한국 제조업의 투자입지 선택:
영과잉 포아송모형을 통한 분석, **무역학회지**, 4(40), 191-219.
- 한병섭. 김익수(2004), 중국투자기업의 철수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영연구**,
15(1), 107-147.

<해외 문헌>

- Aldrich, Howard and Auster, Ellen R. (1986), "Even dwarfs started small: Liabilities of age and size and their strategic implic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165-198.
- Arild Aspelund, Tage Koed Madsen, & Systeim Moen, (2007), "A review of the foundation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ies, and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41(11/12), 1423-1448.
- Bamford, C., Qureshi, H., Nicholas, E. and Vernon, A. (1999), "Outcomes of social care for disabled people and careers. Outcomes in Community Care Practice," *Social Policy Research Unit*, University of New York.
- Beamish, P. and Banks, J. (1987), "Equity joint ventures and the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8, 1-16.
- Boeker, W. (1989), "Strategic change: The effects of founding and histo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2, 489-515.
- Boeri, T. and Bellman, L. (1995), "Post-entry behaviour and the cycle: evidence from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3, 483-500.
- Bonfim, D. (2009), "Credit Risk Drivers: Evaluation the Contribution of Firm Level Information and of Macroeconomic Dynamic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33, 281-299.
- Bradly, D.G. (1997), "Managing against Expropri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5-83.

- Camagni, R. (1991), *Innovation Networks: Spatial Perspectives*, Belhaven Press, London.
- Cefis, E. and Marsili, O. (2006), "Survivor: The role of innovation in firms' survival," *Research Policy*, 35(5), 626-641.
- Chowdhury. (1992),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and Wholly Owned Foreign Subsidiaries: A Comparative Perspective,"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MIR)*, 32(2), 115-133.
- Christie, T. and Sjoquist, D. L. (2012), "New Business Survival in Georgie: Exploring the Determinants of Survival Using Regional Level Data," *Growth and Change*, 43(1), 110-142.
- Dinh, Thi Thanh Binh. (2014), "Determinants to the Existence of Foreign Firms in Vietnam," *SECO / WTI Academic Cooperation Project Working Paper Series*.
- Donald C. Hambrick, Theresa Seuong Cho and Ming-Jer Chen (1996), "The Influence of Top Management Team Heterogeneity on Firms' Competitive Mov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1(4), 659-68.
- Dunne T., Roberts, M.J. and Samuelson, L. (1988), "Patterns of Firm Entry and Exit 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 *Rand Journal of Economics*, 19(4), 495-515.
- Fotopoulos, G. and Louri, H. (2000), "Location and Survival of New Entry," *Small Business Economics*, 14, 311-321.
- Geroski, P. A., Mata, J. and Portugal, P. (2010), "Founding Conditions and the Survival of New Firms," *Strategic Management*

- Journal*, 31, 510-529.
- Geroski, P. A. (1995), "What Do We Know About E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3, 421-440.
- Gort, M., & Klepper, S. (1982), "Time paths in the diffusion of product innovations," *The Economic Journal*, 92(367), 630-653.
- Hambrick, D.C. and Mason, P.A. (1984), "Upper echelons: the organization as a reflection of its top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193-206.
- Hannan, Michael T. and John Freeman. (1984), "Structural Inertia and Organization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149-16.
- Hannan, M. T. (1989), *Organizational Ec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 Helfat, C. E. and Lieberman, M. B. (2002), "The Birth of Capabilities: Market Entry and the Importance of Pre-history,"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1(4), 725 - 760.
- Jovanovic, B. (1982), "Selection and the evolution of industry," *Econometrica*, 50(3), 649-670.
- Kalbfleisch, J. D. and Prentice, R. L. (1980), *The Statistical Analysis Failure Time Data*, Wiley, New York.
- Kang Mi and Lee Jae Woo(2009), "Survival Analysis of Small and Medium Size Construction Enterprises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15(2), 41 - 57.
- Jungho Kim and Chang Yang Lee (2016), "Technological Regimes and

- Firm Survival,” *Research Policy*, 152 154 45(1), 232 - 243.
- Jeong-Bon Kim, Yinghua Li and Liandong Zhang (2011), “Corporate tax avoidance and stock price crash risk: Firm-level evide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0, 639-662.
- Lee ET. (1992), *Statistical Methods for Survival Data Analysis*, John Wiley & Sons, New York.
- Maki, W. R. and Lichty, R. W. (2000), *Urban Regional Economic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Mata, J. and Portugal, P. (1994), “Life duration of new firm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42(3), 227-245.
- Mata, J., Portugal, P. and Guimaraes, P. (1995), “The survival of new plants: Start-up conditions and post-entry evol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3(4), 459-481.
- McGann, J. G. and Weaver, R. K. (2000),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Catalysts for Ideas and Ac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Nijkamp, P., G. van Oirschot and Oosterman, A. (1994), *Knowledge networks, science parks and regional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critical success factors*, Avebury.
- Nunes, A. and Sarmiento, E. (2010), “Business Demography Dynamic in Portugal: A Non-parametric Survival Analysis,” *Estudos do GEMF*, 09, 1293-1308.
- Pfeffer, J and Salancik, G. (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New York,

- Harper & Row.
- Pfeffer, J. (1982),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 Theory*, Marshfield, Massachusetts, Pitman.
- Porter, M. (1998), "Cluster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6(6), 77-90.
- Root, F. R. (1987), *Entry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Markets*, Lexingaton Books.
- Schein, E. H. (1992),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cott, W.R. (1981), *Organizations: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hepherd, D. A., Ettenson, R. and Crouch, A. (2000), "New Venture Strategy and Profitability A Venture Capitalist's Assess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49-467.
- Sitkin, S. B. (1992), "Learning through failure: The strategy of small losse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4, 231-266.
- Stinchcombe, A. (1965), "Social structure and organizations," *Handbook of Organizations*, 142 - 193.
- Thompson, J. (1967), *Organization in Action*, New York, McGraw Hill.
- Todtling F. and Wansenbock, H. (2003), "Regional differences in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tart-up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5(4), 351-370.
- Vanhonacker, W. (1997), "Entering China: An Unconventional Approach," *Harvard Business Review*, 75(2), 130-140.
- Westhead, P and Birley, S.(1994), *Enviroments of Business*

Deregistrations in the United Kingdom,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Woodcock, C. P., W. Beamish., and Makino, S. (1993),

“Ownership-Basde Entry Mode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5(2), 253-273.

